

우리에절배우기

경봉

소개글

이책은 최근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예절의붕괴를 막고 바로 잡는데 일조가될까하여 만들어본 것이다.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사회는 지금 예절에 있어서 큰 혼미상태에 빠져있고 삼강오륜(三綱五倫)이 땅에 떨어져 말과 행동이 모두 험악하고 거칠다. 물질 제일주의는 예의염치(禮義廉恥)를 추월하여 질서가 무너져 사회는 어지럽고 동방예의지국 의 궁지는 옛말이되고 말지경에 이르렀다.

예절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위한 일종의 사회적 규범이요 약속이다. 그러므로 이약속이 무너지면 사회질서가 무너져 인간생활에 큰 혼란이 이러나게 된다.

오늘날의 우리사회가 바로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동 서양을 막론하고 민족마다 독특한 예절이 있게 마련인데, 형식면에서는 비교적 많은 차이가 있으나 근본적인 내용면에서는 인류평화의공존 과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 이라는 큰 이상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말할 것도

목차

1	제1장 예절	4
2	제2장 절예법	11
3	제3장 생활예절	15
4	제4장 서양식예절	22
5	제5장 혼례	28
6	제6장 상례	35
7	제7장 제례	48
8	우리예절 각종 서식 들	63

예절 상식 (禮節常識)

머리말

이글은 최근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예절의붕괴를 막고 바로 잡는데 일조가될까하여 만들어본 것이다.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사회는 지금 예절에 있어서 큰 혼미상태에 빠져있고 삼강오륜(三綱五倫)이 땅에 떨어져 말과 행동이 모두 험악하고 거칠다. 물질제일주의는 예의염치(禮義廉恥)를 추월하여 질서가 무너져 사회는 어지럽고 동방예의지국 의 금지는 옛말이되고 말지경에 이르렀다. 예절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위한 일종의 사회적 규범이요 약속이다. 그러므로 이약속이 무너지면 사회질서가 무너져 인간생활에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

오늘날의 우리사회가 바로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동 서양을 막론하고 민족마다 독특한 예절이 있게 마련인데, 형식면에서는 비교적 많은 차이가 있으나 근본적인 내용면에서는 인류평화의공존 과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 , 이라는 큰 이상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예절은 유교문화의 예절이다. 유교문화는 서양의 기독교문화보다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이다. 모든나라가 민주주의체제로 바뀌어버린 오늘날 서양문화의 개방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장점이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게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시대가 아무리 변할지라도 사람이 지켜야하는 윤리도덕은 삼강오륜에 대신 할만한 것이 아직은 없다.

서양의 개인주의가 우선은 좋은 것 같지만 긴 안목으로 볼 때 동양윤리에 못미친다고 본다 이점을 우리는 명심해야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를 너무나 등한시 해왔다. 일제치하에서 해방된지 벌써 반세기 가 지났으니까 현재 회갑이 된사람도 해방당시에는 나이10여세에 불과 하였다.

전통예절을 배우고 익혔을 나이가 아니었다.그기에도 해방과 동족상쟁인 6.25 전쟁 과 함께 물밀 듯 밀려든 서구문화 때문에 우리전통문화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먹고 살기바쁜 전후세대 는 민족교육은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예절은 주자가례(朱子家禮)에의한 것이다. 수백년간 내려오면서 다듬어졌지만 너무 번잡하고 허례허식에 치우친감이 없지 않았다. 오늘날과 같이 복잡하고 바쁜세상에 도저히 실천하기가 어렵다.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한다. 시대가 변하면 예절도 변하는 것이 맞다. 혹 없어지고 간편해지는 것은 자연적 추세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할 것은 보전할 가치가 있는 미풍양속은 잘 보전해야한다는 점이다.옛 것이 무조건 좋은것도 아니요 무조건 나쁜것도 아니다.보전할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은 버리고 고쳐쓰는 지혜도 필요하다.따라서 우리는 전통예절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비합리적인 부분은 시대에 부합하도록 조화시켜나가야한다.

우리는 이제 훌륭한 우리의예절을 되찾아야 할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두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일체가되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언론매체의 영향은 지대하다. 이글이 우리모두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한다.

이글은 성균관 전례연구위원회 의 우리의생활예절 ,미국인 엘리자베스 엘 포스트 교수의 서양식예절 , 계명대학교 최길성교수의 한국의조상 숭배 ,가례편람 등 저서를 일부인용 또는 참고 하였다.

편집자 송갑중 선생 2012년1월 , 글 전자편집자 경봉 2012년6월

꼭 배워야할 우리예절 과 질서

제1장 말(우리예절)

제1절 말과 말씨

말은 마음의 표현이다. 따라서 말을 하는사람이나 듣는사람 모두가 예절을 지켜야한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고 듣기가 편해야한다. 너무 크게 말하거나 작게 말하지않고 정확한 발음과 적당한 속도로 조용하게 말해야 한다. 특히 연세가 많은 분에게는 천천히 크게 말해야 한다.

가급적 표준말을 사용하되 품위있는 고운말을 골라서 써야한다.

우리말의 특징은 첫째 한문이 그대로 우리말로 된 것이 많다는 점이다. 비행기 라고하면 즉시 알아들을수 있지만 날틀 이라고 하면 이해 하기가 어렵다. 이런 예를 들자면 끝이 없다.

두 번째 특징은 어휘(語彙)가 다양하다는 점이다. 같은 말이라도 그때의 상황과 상대에 따라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

밥을 메 라고도 하고 진지 라고도 하며 수라 라고도 하듯 우리는 곳과 상대에 따라 알맞은 말을 골라서 써야하는 것이다.

1말씨

말씨란 말하는 모양(또는 말하는 버릇)을 뜻한다. 우리말은 대화상대에따라 높임말과 낮춤말 보통말등 여러 가지 있다. 예를들면,

높임말씨;

하십시오 하세요 웃어른에게는 말 끝에 다, 와까?를 붙여서 존대한다.즉 그렇게 했습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그리고 시, 세, 셔가 말가운데끼어서 존대말 이된다.즉 하시었다 하세요 하셔셔 등

반높임말씨; 하오, 해오 말의 끝맺임이 오, 요, 로 끝나는 말이다. 이것은 존대말이 아니고 보통말씨나 낮춤말씨를 써야할 상대지만 잘아는 사이가 아닐 때 쓰는말이다.즉 이렇게하오 저리가오 따위 그러나 그렇게 했어요 언제오셨어요? 하면 정다운 말씨가된다.

보통말씨;

하게 하시게 친구사이에 보통쓰는 말이다. 아랫사람이라도 좀 더 대접해서 말하려면 이 보통말씨를 쓴다. 말의 끝맺음이 게 , 와 나, 가? 로 끝난다. 즉 여보게 그렇게하게 언제왔는가? 벌써왔나? 따위. 그리고 보통말씨를 해야할 상대를 높여서 대접할때는 말사이에 시, 셔를 끼워서 쓴다. 즉 그렇게 하시게 어디에서 오셨는가? 등이다.

반나춤말씨;

해 했어요? 낮춤말씨를 써야할 상대지만 그렇게 하기가 거북하면 반 나춤말씨를 쓰는데 이것을 흔히 반말 이라고 한다. 즉 이렇게해 언제왔어? 따위

낮춤말씨;

해라 . 했니?. 잘아는 아랫사람이나 아이들에게 쓰는말이다. 즉 이것해라, 언제왔니? , 따위.

2. 존대말 (尊 待 語)

같은말 이라도 명사(名 詞)나 동사(動 詞)에 웃어른에게 쓰는 어휘(語 彙)가 따로있다.앞에서말한 모든 말씨는 명사와동사에 관한 것이다.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와 아버지 밥 먹어요를 비교해볼 때 같은말이지만 언어 예절상 큰 차이가 있다.존대어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앞의것은 보통 이고 뒤의것 은존대어 어휘이다.) 밥 _진지, 먹다_잡수시다, 주다-드리다, 말-말씀, 말하다-여쭙다, 야단-꾸중,죽다-돌아가시다,끝내다-화내다,성질-성품, 저사람-저분, 보다-뵈다, 데리고-모시고, 있다-계시다. 집-댁 , 생일-생신, ---가_---께서, 등등 (1)어른에게는 물론 높임 말씨와 존대어를 쓴다,예컨대 선생님 진지잡수세요 또는 잡수세요. (2)아버지에게 할아버지를 말할때는 두사람 모두 높인다, 할아버지께서 잠드셨습니다,아버지께서도 주무십시오. (3)할아버지에게 자기 아버지를 말할때는 아버지를 낮추어 말한다,즉 할아버지, 아버지는 밥먹었습니다. (4)아랫사람에게 웃어른을 말할때는 아랫사람은 낮추고 웃어른은 높인다. 예야 뭐라고 말씀 하셨느냐,

잘못 사용되고 있는말

엄마 라는 말은 어린 아이들이 쓰는 말이다, 발음이 서투른 젓먹이 아이들이 쉽게 말할수있게 만들어진 낱말이다. 그러므로 아기가 자라서 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 로 말을 바꿔야 한다. 그런데도 요즘 사회에서는 대학생들 비롯하여 결혼한 남녀 까지 아빠 엄마 라고 부르고 있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영향력이 큰 TV 에서까지 예 사로 사용되고 있는 장인 장모를 엄마 아빠 로 호칭 하고 있으니 언어정화 에 큰 문제 꺼리가 되고 있다. 누나 라는 말도 이와비슷한 경우이다. 남매가 서로 나이를 먹으면 당연히 누님 이라고 불러야 한다. 또 손위누이 남편은 매형 이 아니라 자형 이다. 자(姉)는 손위누이자 이고매(妹)손아래누이매 자이다,손아래누이 즉 여동생 남편은 매제(妹弟)또는 매부(妹夫)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시동생이나 시숙을 삼촌 이라고 부르고 시누이를 고모 라 하는것도 잘못이다. 자기의 삼촌이나 고모가 아니므로 당연히 도련님 아주버님 아가씨 또는 형님 이라고 불러야한다.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말 중 사랑한다는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즉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아이의 부모가 자녀를 보고 사랑한다는 말을 할수있지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보고 사랑한다는 말은 맞지 않고 말을 하려면 위로는 존경합니다, 또는 공경 합니다가 맞는 말입니다.

남용되고 있는 말

아버님 어머님 오빠 누나 형 언니 라는 말은 모두 자기와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명칭이다. 그러므로 이를 타인에게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이가 좀많다 싶으면 아무에게나 아버님 어머님 이라고 부르고 ,생일만 몇 달 앞서면 누구에게나 형 누나 오빠 라고 부르면 누가 진짜 아버지이고 누가 가짜 아버지 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혈연존칭은 쓸만한 곳에반 써야지 함부로쓰면 않된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 가 아니면 어른신 또는 어른신네 라고 하거나 □군 아버님 □군어머님 이라고 해야 옳다. 형 오빠 누나 등도 이치는 마찬가지다.

제2절 호칭과 지칭(呼 稱 指 稱)

호칭이란 어떤 사람을 직접 부르는 말이고 지칭이란 어떤 사람을 남에게 말할 때 가르켜 일컫는 말이다. 즉 자기와의 관계를 말하는 관계칭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조부모를 자기가 직접 부를 때 할아버지 할머니 라고 호칭 하지만 이를 남에게 말할때는 조부님 조모님 이라고 자기와의 관계를 말한다, 또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같은 대상자 라도 상대에 따라 다르게 말한다, 두더러진 특장은 자기 또는 자기잡안 사람을 남에게 말할때는 칭호 앞에 비(鄙) >사(舍) >가(家) >를 부쳐서 낮추고,반대로 남을 말할때는 칭호 앞에존(尊) >귀(貴) >령(令) >현(賢) >을 또 칭호 끝에 장(丈) >씨(氏) >를 붙여 높여준다. 예컨대 비종숙 가형 사형 과 귀외숙 존종조모 귀종조모 령종매 계씨(季 氏) 등이 있다.

1.자기에대한칭호

나,같은 또래나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 저, 제; 웃어른이나 여러사람에게 말할 때 우리. 저희; 자기쪽을 남에게 말할 때. 할아버지.할미.아비 어머니;자기를 아랫 사람에게 말 할때,

2.부모에 대한 칭호

아버지, 어머니. 부모를 직접 부르고 지칭하거나 남에게 말할 때 아버님 어머님. 시부모를 직접 부르고 지칭할 때 받 어른 안어른 또는 시어른; 시부모를 남에게 말할 때 받어버이 안어버이; 친정부모를 시댁 웃어른에게 말할 때.노친 이라고도 함. 아비 어머니; 조부모 에게 자기 부모를 말할 때,부모가 자녀에게 자기를 말할 때,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그의 부모를 말할 때. 가친 자친; 자기아버지 와 어머니를 남에게 말할 때 춘부장 자당; 상대의 아버지, 어머니를 그에게 말 할 때 부친 모친; 남의 부모를 남에게 말할 때 선친 또는 선고 선비; 돌아가신 부모를 남에게 말할 때 , 죽은 사람에게는 칭호 앞에 선 또는 망 자를 부친다. 현고 현비;축문이나 지방에 사망한 부모를 쓸 때, ; 선고장 대부인; 남에게 그의 죽은 부모를 말 할 때. 부주 모주; 편지에서 부모를 일컬을 때 주는 님 이라는 뜻.

3. 아들에게 대한 칭호

애, 너 , 이름--;직접 부를 때. 집아이 . 자식, 가아; 자기 아들을 남에게 말할 때. 소자 불초자;아들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쓸 때. --아비; 며느리에게 그의 남편인 아들을 말할 때. 자제 . 영윤 영식; 남에게 그의 아들을 말할 때. 망자; 죽은 자기 아들을 축문 지방에 쓸 때. 애.--어머니;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르거나 지칭할 때. 네댁. 어머니; 아들에게 그의 아내인 며느리를 말할 때. 네어미; 손자 손녀 에게 그의 어미를 말할 때. 며느님 자부; 남에게 그 며느리를 말 할 때.

5. 딸에 대한 칭호

애, 너, 이름--;미혼 딸을 직접 부르거나 지칭할 때. 실; 출가한 딸은 그 남편의 성을 붙여서 부른다. 여식.딸; 자기 딸을 남에게 말할 때. 어미;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들의 어머니 글 말할 때. 따님.영애; 남에게 그 딸을 말 할 때.

6. 사위에 대한 칭호

-서방.자네; 장인 장모가 사위를 부르거나 지칭할 때. 네남편 □서방; 딸에게 그남편인 사위를 말할 때. 서랑 . 사위님; 남에게 그의 사위를 말할 때.

7. 부부간의 칭호 여보, 당신; 부부가 서로 부를 때. 사랑(畵 郎);시댁의 어른이나 동서에게 자기 남편을 말할 때. --서방; 친정어른에게 자기 남편을 말할 때. 안(內); 자기 집이나 처가의 같은 세대와 어른 제수 처남댁 에게자기 아내를 말할 때. 내자,집사람;자기 아내를 남에게 말할 때. 바깥어른, 주인어른, 부군; 남에게 그의 남편을 말할 때. --어미, 제댁; 자기 아내를 자기집이나 처가의 웃어른에게 말할 때. 안어른 ,부인.영부인; 남에게 그의 아내를 말할 때.

8. 형제간에 대

한 칭호

언니; 미혼의 동생이 형을 부를 때. 형님; 기혼의 동생이 형을 부를 때. 형 ; 집안 어른에게 자기형을 말할 때. 가형. 사형 ; 자기형을 남에게 말할 때. 민형은 백형 둘째형은 중형 세째형은 숙형 네째형은 계형. 자네. 이름--; 결혼을 했거나,10년이상년하인 동생을 부를 때. 백씨장.존형장; 남에게 그의 형을 말할 때,만일 두째형이면 중씨장 세째형은 숙씨장 이라고 한다. 제씨 ; 남에게 그의 동생을 말할 때.

9. 자매간에 대한 칭호

언니 ;미혼 여성이 여자형을 부를 때. 형님 ; 기혼 여동생이 여자형을 부를 때. 애, 너, 이름--; 여자형 이 여동생을 부를 때 -실 ;집간 여동생을 부를때는 그 남편의 성을 부쳐서 부른다. 형 ;집안 어른에게 여자 형을 말할 때. --어미 ; 집안 어른에게 자녀를 둔 여동생을 말할 때

10. 남매간에 대한 칭호

오빠 ;미혼 여동생이 남자형을 부를 때 오라버님 ;미혼 또는 기혼 여동생이 기혼 남자형을 부를 때 오라비 ;여동생이 집안 어른에게 남자형을 말할 때 누나 ;미혼 남동생이 손위 누이를 부를 때 누님 ; 기혼 남동생이 손위 누이를 부를 때 애,너, 이름-- ; 손위 누이가 미혼 남동생을 부를 때 .오라비가 미혼 노이동생을 부를때 --아버지, 동생, 자네 ; 손위 누이가 기혼 남동생을 부를 때.

11. 형제 자매의 배우자 칭호

새아주머니 .형수님 ;시동생이 형의 아내를 부를 때. 형수씨 ;남에게 자기 형수를 말할 때 아주미,아지미 ;형수;집안어른에게 형수를 말할 때. 제수씨 ; 동생의 아내를 부를 때 종수씨 ; 종형수(사촌형수)를 부르거나 말할 때 제수 ; 집안 어른에게 제수를 말할 때 새형님, 형님 ; 시누이가 오라비의 아내를 부를 때 언니라고 부르는 것은 좋지않다. 자형 I 손위 누이의 남편을 남에게 말할 때. -서방, 자네 ;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 매부 ,매제 ;손아래 누이 남편을 남에게 말할 때 새아저씨 ;여동생이 녀형의 남편을 말할 때 와 남에게 말할 때 형부 ; 여동생이 여형의 남편을 말할 때 와 남에게 말할 때 -서방 ; 남. 여형이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때

12. 시댁 가족에 대한 칭호

아버님, 어머님 ; 남편의 부모를 부르거나 말할 때 아주버님 , 형님 ;남편의 형과 그 배우자를 부르거나 말할 때 도련님 ; 미혼 시동생을 부를 때 형님 ;남편의 누님(손위시누이)를 부를 때 시숙 ; 남편의 형을 남에게 말할 때 새아주버님 ;결혼한 손위 시누이 남편을 부를 때 -서방

댁 ;결혼한 손아래 시누이의 남편을 부를 때와 가족간에 말할 때 시동생 ; 남편의 남동생을 남에게 말할 때 시누이 ; 남편의 자매를 남에게 말할 때 새댁, 자네 ;시동생의 아내를 부를 때 아가씨 아씨 ;미혼의 손아래 시누이를 부를 때와 그 가족간에 말할 때.

13. 외가 가족에 대한 칭호

외할아버지 , 외할머니 ; 어머니의 부모를 직접 부를 때 외조부, 외조모 ; 어머니의 부모를 남에게 말할 때 외아제, 외아주머니 ;어머니의 남자 형제와 그 아내를 남에게 말할 때 어숙,외숙모 ;어머니의 남형제와 그 아내를 남에게 말할 때 외사촌, 이종, 표종 ;외숙의 자녀 고모, 고모부 ;아버지의 자매와 그 남편 고종,내종 ;고모의 자녀 생질, 생질녀,생질부,생질서 ;결혼한자녀와그배우자 이모 이모부 ; 어머니의 자매와 그 남편 이종 ; 이모의 자녀 이질,이질녀,이질부,이질서; 어머니의 자매가 낳은 자녀와 그 배우자.

14. 처가가족에 대한 칭호

장인어른, 장모님 ; 아내의 부모를 부를 때. 빙장, 빙모 ; 아내의 부모를 남에게 말할 때. 장조부, 장조모 ; 아내의 조부모를 부르거나 일컬을 때 처형, 처재 ; 아내의 자매를 말하거나 부를 때. 처남, 형님 ; 손위 처남을 말하거나 부를 때. 손아래 처남을 부를때는(처남)또는 자네 라한다. *이밖의 처가 가족의 호칭은 사회적인 호칭에 처 자 만붙이면 된다.

15. 기타 친인척 간 의 호칭

할아버지, 할머니, ; 조부모를 직접 부를 때. 할아버님, 할머니님 ; 남편의 조부모를 부를 때. 시부모,시조모 ; 남편의 조부모를 남에게 말할 때. 맏아버지 ;아버지의 형님을 부를 때. 큰아버지 ; 아버지의 형님을 부를 때. 작은아버지 ; 아버지의 동생을 부를 때. 백부, 중부. 숙부. 계부 ; 아버지의 형제를 순서대로 말할 때. 아저씨, 아주머니 ; 아버지와 사촌이상인 아버지세대 어른과 그배우자를부를 때 아주머니 ; 고모 이모를 부를 때. 새아저씨 ; 고모부 이모부를 부를 때. 대부님 , 대모님 ; 팔촌이 넘는 할아버지 할머니뻘 어른을 부를 때. 족장,족조,족숙, 족형,족손,족질,족제, ;10촌이상의 조손 숙질 형제 행열을 부를때와 말할 때. *타성과 혼인하여 인척관계를 맺으면 호칭 앞에 새를 부쳐서 부른다.예컨대 형수를 새아주머니, 자형을 새형님, 고모부를 새아저씨 로 부른다.

16.사돈에 대한 칭호

사동이란 여자가 시집을 갔을 때 여자의 친정가족과 시댁 가족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사돈간에도 사행 이라해서세대의 상하를 엄격히 가려야 하고 따라서 호칭도 매우 엄격하다. 사장어른 ; 윗세대 사돈 남녀 에 대한 호칭이다. 윗세대 사동이란 며느리의 친정조부모 딸의 시조부모, 형수와 제수의 친정부모. 자매의 시부모와 같이 자기보다 윗 세대인 사돈을 말한다. 사돈어른 ; 같은세대의 동성끼리 사돈으로서 나이가 10년이상 년상일 때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성의사돈, 즉 여자의 친정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친정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시아버지가 친정어머니를 시어머니가 친정아버지를 말 할때에도 이렇게 부른다. 사돈 ; 같은 세대의 동성끼리 사돈으로서 연령차이가10년이하 일 때 여자의 친정과 시댁의 부모 끼리 서로를 말할 때 쓴다. 여 사돈을 사부인이라고도 부른다. 발사돈, 안사돈 ; 남녀 사돈을 남에게 말할 때. 사하생 ; 사돈의 아랫세대의 남녀를 말할 때 즉 며느리의 형제 자매와 사위의 형제 자매등을 말한다. 사가도령, 아가씨 ; 사가의 미혼 남녀 사가아기,아기씨 ; 사가의 어린 남녀.

17. 사회생활에서의 칭호

(1) 잘 아는 사람에 대한 칭호

어르신, 어르신네 ;부모의 친구 친구의 부모 또는 부보같이 나이가 많은 남녀어른 (자기보다16년이상연장자) 선생님 ; 자기가 존경하는 웃어른이나, 직업이 선생님 인 남녀 어른. 노 형 ; 자기와 11년 내지 15년사이의 년상 년하 간의 상호 칭호 형, 형님 ; 자기와 6년 내지 10년사이의 년상 년하 간의 상호 호칭. 선배, 선배님; 학교 선배 또는 같은 일을 하는 년 상자. 이름□자네 ; 10년 이내의 나이 차이로서 친숙한 사이. 부인 ; 기혼자로서 어르신네 선생님 이라 부를수 없는 여자 --님 ; 상대의 직책명에 님을 붙인다.

(2)잘모르는 사람에 대한 칭호 노인장 , 노인어른 ; 60세 이상의 남녀 노인. 어르신 ,어르신네 ; 자기부모 와 같이 나이가 많은 남녀

선생님 ; 자기가 존경할만큼 점잔커나 나이가 많은 남녀. 선생, 노형 ;무엇이라고 부르기가 거북한 남자. 형씨 ; 자기와 동 연배인 남자 끼리. 부인 ; 어르신네 선생님 이라 부를수 없는 기혼 여자. 젊은이,청년 자기보다 16년 이상 년하인 청장년. 총각 아가씨 ; 미성년 또는 미혼인 남녀. 맥 ; 형씨 라 부를 동성간이나 이성간. 학생 ; 학생 신분인 남녀.

18. 직장에서의 칭호

선생님, -선생님 ;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자기가 다니는 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을 부르거나 말할 때. 이름-- ,너 ; 선생님이 미성면인 자기학교 학생을 부를 때.(고교까지적용) --군 ,자네 ; 선생님이 성년이된 자기 학교 학생을 부를 때.(대학생이상적용) 부장님,과장님 ; 자기가 소속된 부서의 상급자는 직급명에 님을 붙인다. 서부부장님,총무과장님 ; 다른부서의 상급자는 부서이름을 앞에 붙인다. --부장님,-과장님 ; 같은 직급에 여러사람의 상급자 가 있을 때 는 성 또는 성명을 앞에 붙인다. 부장,과장 ; 상급자 에게 그의 하급자이면서 자기에게는 상급자를 말할때는 님을 부치지 않고 직책과 직급명 만을 말한다. --과장, ---대리 ; 같은 직급에 여러사람의 하급자가 있으면 성이나 성명을 앞에 붙인다. ---씨, ---여사 ; 직책이나 직급명이 없는 하급자 성명에 씨 나 여사를 붙인다. ---선생님, ---여사님,---형 ; 하급자 라도 자기보다 연장자 이면 높여서 부른다 ---군,---양 ; 하급자 가 미성년이거나 10년 연하인 미혼자 이면 성이나 성명에 군 양을 붙인다. ---과장님 ; 동급자 라도 연장자에겐 님을 붙인다. -부장,--과장 ;동연배 동급자 간에는 직급 명만 부른다. 선생님,-선생님 ; 동료 라도 10년 이상연상이면 선생님을 붙인다. 선배님 ; 자기보다 5년이상 입사 선배거나 연장자면 남녀 모두 선배님이라 부른다. ---씨,---여사님 ; 동료간이지만 친숙하지 못한 동년배는 씨 여사님을 붙인다. -형,--여사 ; 동년배로서 친숙한 사이에는 성이나 성명에 형 여사를 붙인다. -군,-양 ; 10년 이상 년하로서 친숙한 미혼이나 미성년은 군 양을 붙인다.

19. 기타

(1) 호칭, 지칭,

존수 호칭은 상대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고, 지칭(일명관계칭)은 갑과을의 관계를 설명하는말이다.존수는 갑과 을의관계가 어느정도 가까운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존 은 마디존 으로 서 마디가 몇 개냐에 따라 친소 관계를 나타낸다.가령 아버지의 형제를 예로든다면 칭호는 큰아버지 또는 작은아버지라부르고 자기와의 관계는 아제비와조카로서그관계칭이 숙부 이다.그리고 존수로 따지면 3촌이다.그러므로 이세가 지를 혼동해서는 않된다.상대를 부를 때 숙부님 삼촌 이라 하는 것은 과히 틀린말은 아니나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옳다.같은 이유로 형수는 새아주머니 자형은새형님 고모는 아주머니 부친은 아버지로 부른다.

(2) 어떤 말씨를 써야 할까?

친인척과 첫 대면을 했을 때 어떤 말씨를 써야하는지 당황하게된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몇가지 원칙이있다. 가. 자기와 존수가 멀어질수록 타인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타인에게는 존대어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나.

행렬보다 나이가 우선이다.항열은 낮고 나이가 많을 경우에는 그에대한 응분의 대우를 해야한다. 나이가 10세 이상 많을때는 무조건 높임말, 6세이상많을때는 높임말 또는 반높임말씨,5세이하 많을 때는 경우에 따라 반높임 또는 보통말씨 자기와 동연배 또는 연하일때는 반낮춤 또는 낮춤 말을 쓰면 된다.원칙이 이와같으니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면 된다.

다.

이성간에는 서로 존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이유는 말을 함부로 하게되면 남녀간에 지켜야할 윤리적 실서가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선조들은 옛부터 남녀간에 언어 사용은 신중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젊은 남녀들이 한드번 만나면 서로 오빠니 언니 니 하면서 말을 낮추는 것은 큰 잘못이다.

라.

여자는 친정집이나 시댁가문에 장가온(각종사위)사람에게 높임말을 써야한다.즉 질서 ,종질서,형부,제부등이다.다만 장모 장조모 처종조모등 존속은 예외이다.

마.

처가댁 여자는 미혼, 기혼을 막론하고 높임말을 써야한다. 다만 어린이는 예외다. 요즘 항열이 높다고 해서 처질녀, 처이질녀에게 에게 낮춤

말을 쓰는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잘못이다.그리고 처제의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바.

남자는 비록 자기 향열이 높더라도 생질부. 이질부등 직접혈연관계가 아닌 여자측 타성에게는 존대해야한다. 다만 친족의비속인 질부, 종질부등 직접 혈연관계가 아닌 여자측(타성)에게는 존대해야 한다. 다만 친족의 비속인 질부,종질부등은 낮춤말씨가 원칙이다.이것도 연령이 비슷하면 보통말씨,반낮춤말을 쓰고, 나이가 상당히 많으면 서로 존대하는 것이 좋다.

(3) 삼촌이외의 숙항 은 아저씨라부른다.

(4) 친인척여자의배우자 예겐 호칭 끝에 夫 가 붙고 출가한여자는 시댁사람 호칭앞에 시(孀)를 붙인다. 또 처가댁 사람에게는 처(妻),외가댁 사람에게는 호칭앞에 외를 붙인다.예컨대 고모부 시숙모 처질녀 외중숙 따위

(5) 님 은 존칭이다 . 형님 누님 아버지 어머니 는 그자체가 존칭이므로 구태여 님을 붙이지 않는다. 그러나 편지(서잔)에서는 님을 붙인다.

그리고 며느리는 시댁사람 에게 모두 님 을 붙여서 딸들의호칭과 구별한다.즉 아버님 할아버님 아주버님 도련님 서방님, 등등 님=主

(6)아버지의 외가는 진외가라하고 어머니의 외가는외외가라 한다.

(7).형제의 아내끼리와 자매의 남편끼리를 동서 라고 한다.그러나 엄밀히따지면 형제의 아내끼리는 동시(孀)이다.

제3절 대화예절

1. 말을 할때

(1) 마음을 평온하게 갖고 표정을 부드럽게 한다.

(2) 조용한어조, 분명한 발음, 맑고 밝은 음성, 적당한 속도

(3) 듣는 사람의 표정을 주시하면서 반응을 살핀다.

(4) 상대가 질문하면 이상하게 설명하고 의견을 말하면 성의있게 듣는다.

(5) 남이 예기하고 있는중에 끼어들지 않는다.

(6) 간결하게 요점을 말하며 중언(重 言) 부언(附 言) 하지않는다.

(7) 말을 시작할때에는 양해를 얻어서 하고 끝맺음을 요령있고 분명하게 한다.

2.말을 들을 때

(1) 바르고 공손한자세와 평온한 표정을 한다.

(2) 상대가 알아차리도록 은근하면서도 확실한 반응을 표시를 한다.

(3) 말허리를 꺾으면서 끼어들지말고 의문이 있으면 말이 끝난뒤에 질문 한다.

(4) 질문 또는 의견개진은 정중하게 말한사람의 양해를 구해서 한다.

(5) 몸을 흔들거나 손, 발로 장난치지 말고 열심히 경청 한다.

(6) 대화중에 자리를 뜰때는 양해를 구하고 다른사람에게 방해되지 않게 한다.

(7) 듣는 중에 의문나는 점은 메모 한다.

제2장 절예법

절은 상대방에 대한 공경의 표시이다. 한국 중국 일본 등3국은 같은 유교권국가로서 절하는 제도가 있다.그러나 나라마다 절하는 방식이 다르다.우리나라절에 대해서는 조선조 선조32년 서기1599년 사계 김장생 선생의 가례집람(家禮輯覽)에 그림까지 곁들여 설명하고 있다.

제1절 공수법(拱手法)

어른을 모시거나 의식에 참석하면 공손히 자세를 취해야 하는데 그방법은 두손을 앞으로 모아잡고 다소곳하게 서거나 앉는다. 이렇게 두손을 모아 잡는 것을 공수라고 한다.

1. 평상시

- (1) 평상시 공수는 남좌 여우로서 남자는 왼손이위로 가게 오른손 등을 포개 잡아야 하고 여자는 그반대로 오른손이 위로 가게 해야한다.
- (2) 공수 할때의 손모습은 위에 얹은 손바닥으로 아래의 손등을 덮어서 포개잡는데 두엄지 손가락은 깎지 끼듯하고 교차시킨다.
- (3) 소매가 넓은 예복(도포)을 입을 때는 공수한 팔이 수평되게 올리고, 소매가 좁은 평상복을 입었을때는 공수한손의엄지가 배꼽이에 닿도록 자연스럽게 앞으로 내린다.
- (4) 공수하고 앉을때에 공수한 손의위치는 남자는 두다리의 중앙에 얹고, 여자는 오른쪽 . 다리위에 얹는다

2. 흉사시(凶事時)

- (1) 흉사란 자기가 상주노릇을 하거나 남의 상가에 인사할때나 영결식에 참석하는 것이 흉사이다. 그러나 제사는 흉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조상의 제사는 자손이 있어서 조상을 받들게 되니까 길 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사에서는 흉사시의 공수를 하면 안된다. 엄격하게 말하면 흉사의공수는 사람이 죽어서 약 백일만에 지내는 졸곡제(卒哭祭)직전까지의 행사에 참석할때만 하는 것이다.
- (2) 흉사시 공수는 남우여좌로서 평상시경우의 반대이다. 즉 남자는 오른손이 위로가게 두손을 포개 잡고 여자는 그반대로 왼손이 위로가게 잡는다. 즉 남자의 평상시와 여자의 흉사시 의 공수법이 같고, 남자의 흉사시와 여자의 평상시 공수법이 같다.

제2절 읍례법(揖禮法)

- (1) 읍 은 장소 관계나 기타사정으로 절을 할수없을 때 간단하게 공경을 나타내는 동작이다.그러므로 읍은 간단한 예의 표시 일뿐이고 절은 아니다. 따라서 어른을 밖에서 뵈고 읍예를 했더라도 절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들어와서는 절을 해야한다. 요즘은 경례를 읍례대신 하지만 의식행사에서는 읍례를 반드시 해야한다.

(2)기본동작 대상을 향해 공수하고 두발을 편안한 자세로 벌리고 서서 고개를 숙여 자신의발끝을 본다. 공수한 손이 무릎아래에 이르도록 허리를 굽힌다. 공수한손이 무릎사이로 들어가면안된다..그리고 허리를 세우며 공수한 손을 밖으로 원을 그리면서 팔뚝을 수평으로 되게 올린 후 손을 원래 위치로 내린다.

가. 상읍례; 팔꿈치를 구부려 공수한 손을 눈높이로 올린다.

나.중읍례; 공수한 손을 입높이로 올린다.

다..하읍례 ; 공수한 손을 가슴높이로 올린다.

(3) 종류

- 가. 상읍례 ; 자기가 읍례를 했을 때 답례를 하지않는 높은어른, 또는 의식행사에서한다.
- 나. 중읍례 ; 자기가 읍례를 했을 때 답례를 해야하는 어른 또는 같은 또래끼리 한다.
- 다. 하읍례 ; 어른이 아랫사람 읍례에 답례할 때 한다.

제3절 여러 가지 절예법

1. 종류

- (1) 큰절 ; 남자는 계수배 , 여자는숙배이다. 계수배란 목을조아린다는 뜻이고 숙배는 절한다는 뜻이다. 큰절은 자기가 절을 할 때 답배를 하지 않아도 되는 높은 어른(직계존속,배우자의직계존속,팔촌이내의 연장존속)이나 의식행사에서 한다. *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서 절을 할 때는 창문밖 마루나 마당에서 한후 방안으로 들어간다.그러나 처부모에 게는 그렇게 하지않고 방 안에 들어가서 한다.
- (2) 평절 ; 남자는 돈수배(頓首拜) 여자는 평배이다. 자기가 절을 하면 답배 또는 평절로맞절을 해야 한다. 웃어른이나 같은 또래끼리 사이에서 행한다. 즉 선생님 연장자, 상급자, 배우자,형님 누님, 같은 또래와 친족아닌 15세이하 연하자를 말한다.
- (3) 반절 ; 남자는 공수배 , 여자는 반배이다. 웃사람이 아랫사람의 절에 답배하는 절이다. 즉 제자, 친구의자녀, 자녀의 친구, 남녀동생, 8촌 이내 10년이하 연상의 비속친족아닌16년이상 연하자.

2. 절하는요령

- 남자는 양 이기 때문에 양수인(홀수) 한번을 하고 여자는 음 이기 때문에 음수인 두 번을 하는 것이 기본회수이다. 산사람에게는 기본회수만 하고 죽은사람과 의식행사때는 기본회수의 배를 한다.그러므로 이것을 남녀 불공평 견지에서 보면 안된다.
- (1) 절하는시기; 절할 수 있는 장소에서 절할대상자를 만나면 지체없이 절한다. 간혹 앉으세요 절받으세요 하는일이 있는데 이것은 어른에게 명령하는 것이되어 실례이다. 절을 해야할 상대가 길에서나 뜰에서 만나게되면 서서 몸을굽혀 인사하고 상대가 마루나 방에 앉게되면 그때 절을 해야한다. 길거리나 뜰에서 보았다고 절을 하지않는 것은 잘못된이다.
 - (2) 맞절하는요령; 맞절을 할때는 아랫사람이 하석에 서면서 시작하여 늦게 일어나고 웃어른은 상석에서 늦게 시작하여 먼저 일어난다.
 - (3) 답배하느요령; 웃어른이 아랫사람의 절에 답배할때는 아랫사람이 절을 시작하여 무릎을 꿇는 것을 본다음에 시작해서 아랫사람이 일어나기전에 끝낸다. 비록 제자나 친구의자녀 자녀의친구,16년이하의 연하자라도 아랫사람이 성년이면 반드시 답배를 해야한다.

3.남자의절

(1) 큰절(稽手拜);계수배

- 1 공수하고 대상을 향해 선다.
- 2 허리를 굽혀 공수한 손을 바닥에 짚는다.이때 손을 벌려서는 안된다.
- 3 왼쪽무릎을 먼저 꿇는다.
- 4 오른쪽 무릎을 왼무릎과 가지런히 굽힌다.
- 5 왼발이 앞(아래)이되게 발등을 포개며 뒷꿈치를 벌리고 엉덩이를 내려 깊이 앉는다.
- 6 팔꿈치를 바닥에 붙이며 이마를 공수한 손등에 댄다.차양있는 것이나 모자를 썼을때는 차양이 손등에 닿게 한다.이때 엉덩이가 들리면 안된다.
- 7 잠시 머물러 있다가 머리를 들며 팔꿈치를 바닥에서 댄다.
- 8 오른쪽 무릎을 먼저 세운다.
- 9 공수한 손을 바닥에서 떼어 세운 오른쪽 무릎위에 얹는다.
- 10 오른쪽무릎에 힘을 주며 일어나서 외쪽발을 오른쪽발과 가지런히 모은다.

- (2) 평절(頓手拜;돈수배) 큰절과 같은 동작으로 한다. 다만 큰절의 6.번째 동작,즉 이마가 공수한손등에 닿으면 머물러 있지말고 즉시 머리를 들며 팔꿈치를 바닥에서 댄다.그리고8.번순서로 이어져 일어나는 것이 다르다.

(3) 반절(拱手拜 ;공수배) 이역시 큰절과 같은 동작으로 한다. 다만 큰절의 5.6.7.번동작은 생략한다. 공수한 손을 바닥에 대고 무릎을 꿇은 자세로 엉덩이에서 머리까지 수평이 되게 엎드렸다가 일어나는 절이다.평절을 약식으로 하느절이라 이해하면된다.

4.여자의 절

(1) 여자의 큰절은 원래 무장군인이 진중에서 군례를 할 때 하던 절인데 이것이 여자의 큰절로 행해지고 있다.

- 1 공수한손을 어깨높이로 수평이 되게한다.너무 올리면 겨드랑이가 보이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 2 고개를 숙여 이마를 공수한 손등에 붙인다.엄지손가락 안쪽으로 바닥을 볼수있게 한다.
- 3 왼쪽 무릎을 먼저 꿇는다.
- 4 오른쪽무릎을 왼쪽무릎과 가지런히 꿇는다.
- 5 오른발이 앞(아래)이되게 발등을 포개며 뒤꿈치를 벌리고 엉덩이를 내려서깊이않는다.
- 6 윗몸을 반(45도)쯤 앞으로 굽힌다. 이때 손등이 이마에서 떨어지면 안된다.여자가 머리를 깊이 숙이지 못하는 것은 머리에 얹은 장식이 쏟아지지 않게 하기위해서다.
- 7 잠시 머물러 있다가 윗몸을 일으킨다.
- 8 오른쪽무릎을 먼저세운다.
- 9 일어나면서 왼쪽발을 오른발과 가지런히 모은다.
- 10 수평으로 올렸던 공수한 손을 원위치로 내리고 고개를 반듯하게 세운다.

(2) 평절

여자의 평절은 원래 중국여자의 큰절이었는데 우리나라 큰절보다 수월하므로 평절로쓰인다

- 1 공수한손을 풀어 양옆으로 자연스럽게 내린다.
- 2 왼쪽 무릎을 먼저 꿇는다.
- 3 오른쪽무릎을 왼쪽무릎과 가지런히 꿇는다.
- 4 오른쪽발이 앞(아래) 이되게 발등을 포개며 뒤꿈치를 벌리고 엉덩이를 내려서 깊이앉는다.
- 5 손가락을 가지런히 붙여 모아서손끝이 밖(양옆)을 향해 무릎과 가지런히 바닥에 댄다.
- 6 윗몸을 반(45도)쯤 앞으로 굽히며 두손바닥을 바닥에 댄다. 이때 엉덩이가 들리지않아야 하며 어깨가 치속아목이 묻히지 않도록 팔굽을 약간 굽혀도 괜찮다.
- 7 잠시머물러있다가 윗몸을 일으키며 두손바닥을 바닥에서 뗀다.
- 8 오른쪽무릎을 먼저 세우며 손끝을 바닥에서 뗀다.
- 9 일어나면서 왼쪽발을 오른발과 가지런히 모은다.
- 10 공수하고 완전자세를 취한다.

(3) 반절

여자의 반절은 평절을 약식으로 하면된다. 답배해야할 대상이 만이 낮은 사람이면 남녀모두 앉은채로 두손으로 바닥을 짚는것으로서 답배에 대신하기도 한다.

(4) 경례

경례는 섬생활 입식생활에서 하는절이다. 한복을 입고 경례할때는 반드시 공수하고해야한다. 양복을 입었을때도 조직생활이나 재복이 아니면 공수하고 해야 공손한 경례가된다. 경례는 의식행사라도 한번만하고 윗몸을 90도로 굽혀 잠시 머물러있다가 일어난다. 이것은 신랑과신부의

맞절,상가집에서 영좌에 하는 경례,제사와추모의식등에서 신위에 할때의 경례를 말한다.

1 큰경례 ;윗몸을 45도 굽혀 잠시 머물러 있다가 일어난다. 전통 배례에서 큰절을 해야 하는경우에는 해당한다.

2 평경례 ; 윗몸을 30도로 굽혔다가 일어난다.전통배례에서 평절을 하는경우에해당한다.

3 반경례 ; 윗몸을 15도로 굽혔다가 일어난다.전통배례에서 반절을 하는경우에 해당한다.

제4절 악수(握手)

악수는 절이 아니지만 반가운 인사의 표시로 행하기 때문에 절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는 인사의 일종이며 원래 자연발생적인 동작으로 손과손을 통하여 마음이 상통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있었다고 전해지고있으며 키스 와더불어 중근동의 습관이 페르시아에서 이집트로 다시 유입전체에 퍼지게 되었다고 한다. 좌식 생활을 하는 동양에서는 원래 없었던것이었으나 오늘날은 일상적인 인사의 일종이 되었다.

(1) 악수느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상대방의 오른손을 가볍게 쥐고 친밀감을 나타낸다. 상대가 아픔을 느낄정도로 힘껏 쥐어도 안되고 몸이 흔들릴 정도로 지나치게 흔들어도 안된다.

(2)남녀간에는 여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 청해야 남자가 이에 응한다.

(3) 동성간에는 웃어른이 먼저청하고 아랫사람이 이에 응한다.

(4) 남성은 반드시 장갑을 벗는 것이 예의이지만 여성은 끈체로 해도 무방하다.여성끼리는상대방이 벗으면 이쪽도 벗는 것이 상식이다.

(5) 악수할때 웃어른은 왼손으로 아랫사람의 악수하는 손을 덮어쥐거나 도닥거려 깊은정이나사랑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것은 한국적 악수 법이다.

(6) 악수를 할 때 상체를 구부리는 사람이있으나 그럴필요는 없다 그러나 아랫사람이 웃어른과악수할때는 윗몸을 굽혀 경의를 표할수도 있다.

제3장 생활예절

제1절 위계질서

위계란 위 와 아래 먼저 와 나중의 차례를 말하는 것이다. 이 위계를 준수하므로서 질서가 이루어진다. 삼강오륜에는 부부유별 장유유서 라고 했다 이것은 물론, 위계질서를 말하는 것이다. 논어에 말하기를 나이로 위계를 정하는 기준을 다음과같이 정해놓고 있다. 자기보다 15년 이상 나이가 많으면 아버지를 섬기듯 하고 10년이상 많으면 형님을 섬기듯하고 5년이상 많으면 선후배 사이로 지낸다. 따라서 6년이상 10년이하 나이가 많을때는 많은쪽이 친구로 지내자고 제의 할때만 친구사이로 지낼 수 있고 5년이하 사이는 친구처럼 지낼수 있다는 뜻이다. 또 맹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직사회에서는 직급을 최우선으로 하고 일반사회에서는 나이를 최우선으로 하고 세상을 바르게 하고 백성의 어른이 되는 학문과 덕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위계를 정한다. 그런대 연령차이 직급 차이에 관계없이 위계가 있는경우가 있다. 즉 가르치는 선생님과 배우는제자. 잘하는사람과 못하는사람 앞선사람과 뒤진사람 들과 같은경우이다. 즉 학문과 덕망이 있어 남의 모범이 되고 존경받는 사람은 웃어른 이고 그렇지못한사람은 아랫사람으로서 그를 본받고 존경해야한다.

제2절 개인생활

개인생활이라 할지라도 사회규범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사 (私)보다 공(公) 이앞서야한다. 개인이 지켜야 할 사항은 헤아릴수없이 많지만, 대체로 다음 사항들은 기본적인이다.

(1) 옷은 격식에 맞게 갖추어 입어야 한다.남자가 한복을 입고 외출할때는 반드시 두루마기를 입고 모자를 써야 한다.

(2) 옷은 새것보다 깨끗한 것이 생령이다.항상 정결하게 손질하여 단정하게 입는 것이 중요하다.

(3) 먹는음식이나 먹는데 예 쓰이는 기구를 다룰때에는 위생에 신경을 써서 입에 닿는부분이 손에 닿지않도록 해야한다.

(4) 음식은 너무 빨리먹거나 소리를 내지 않아야 한다.

(5) 반찬을 골고루 먹고 음식은 남기지 않는 것이 좋다.

(6) 음식은 자기가 먹을 만큼 덜어서(별도의 수저로 덜음) 먹는 것이 좋다. 여러사람이 먹는 음식에 자기 입에 들어갔던 수저를 넣으면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위생상으로 좋지 않다.

(7) 물건과 용기를 다룰때는 소리가 나지않고 상하지 않게 해야 한다.

(8) 칼 송곳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남에게 줄때는 날카로운 끝부분을 자기쪽으로 향하게 하고 상대가 손잡이를 잡기 편하도록 해야한다.

(9) 얇은 사람에게는 얇아서 주고 선사람에게는 서서 준다. 또 얇아서 주는 물건은 얇아서 받고 서서주는 물건은 서서 받는다.

(10) 물건을 바닥에 놓을때와 바닥에서 물건을 들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얇아서 놓고 든다.

(11) 남의 앞을 지날때는 반드시 실례합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양해를 구한다.

(12) 먼저인사하고 또 먼저 사과한다.

(13) 실내에서는 발자욱소리가 나지않게 걷는다.

(14) 문턱을 밟지 않는다.

(15) 다른사람과 함께 문을 출입할때는 상대에게 먼저 들어가도록 양보한다.

(16) 사람이 누워있을 때 함부로 타넘지 말것이며 머리말을 지나지 말 것. 부득이한경우에는 양해를 구하고 치맛자락이나 바지가랭이가 머리를 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

(17) 어른에게 물건을 주고 받을 때는 두손으로 받는다

(18) 어른이 들어오면 일단 일어나 자세를 바로 잡아야 한다.

(19) 어른보다 편한자세를 취하지 않으며 어른보다 높은 곳에있지않으며 어른에게 뒷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20) 어른의 정면에 앉지말고 남자는 어른의 왼쪽앞 여자는 어른의 오른쪽앞에 앉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 어른께서 앉으라고 말씀해야 앉는다. 그리고 편히 앉으라고 하면 편히 앉는다. 어른과함께 있을 때 발을 뻗히거나 눕어서는 안된다.

(22) 아랫사람이 외출을 할때는 반드시 뒷사람에 여쭙고 돌아와서는 즉시 보고 해야한다.

(23) 자기전 뒷사람에게 편히주부심시오 인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편하주무셨습니까 하고 문안 인사를 한다.

(24) 욕하거나 저속한 말을 쓰지않는다.

(25) 가개안 도로 열차등 대중이 보거나 대중이 이용하는곳에서 화투나 도박 술판을 벌리지말 것.

(26) 공공시설에서 만나 가되는 짓은 하지 말것이며 고성방가도 하지말 것 공공시설물은 내것보다도 더 아껴야한다.

(27) 열차, 버스안에서 껌을 짹짹 씹지말 것.

(28) 뺨쓰나 열차에서 한좌석에 두사람이 무릎에 앉아 끌어 안는 것은 보기가 상스럽고 불쾌하므로 삼가야 한다.

(29) 좁은 도로에서 남녀가 허리가 어깨를 겹어안고 걸으면 보기도 안좋고 통행에 방해가된다.한국은 서양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30) 목욕탕 탕내에서 얼굴을 씻거나 머리를 감고 물수건을 담궜서는 안된다.

(31) 또한 탕내(온탕 냉탕 외)내에 들어갈때는 꼭 샤워를 하고 들어간다.

제3절 가정생활

가정은 사회와 나라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므로 가정예절은 곧 모든 예절의 모체가된다.

1. 부부간의예절

부부간에는 서로 존대말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 옛날 왕가와 사대부집에서는 반듯이 영감 부인 서방님 여보 등으로 호칭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리오시오 그렇게하오 등 존대어를 사용했다. 상민이나 천민계급은 아내에게 막말을 했던 것이다.그런데 남녀 성차별이 해소된 현대 사회에서 아내에게 네 너 하며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뿐만아니라 여자역시 남편에게 보복이나하듯이 네 너로 응수하고 있는 것이 다.당사자 끼리는 어떨지 몰라도 곁에서 듣기에는 매우 거북하고 기분이 나쁘다.더욱 많은 사람앞에서 그런 저속한 호칭을 구사하는 것은 절

대로 삼가야한다. 여보 당신 이렇게하오 이제갑시다,등 얼마나 고상한 말들인가.

2. 촌수와 친인척관계

친척간 말고 가까운 친소관계를 말하는데는 촌수로 따진다.

(1) 촌수 따지는 법

직계 가족과의 촌수는 자기와 상대방 까지의 대수가 곧 촌수이다 즉 아버지와 아들이 1대이고, 할아버지와 손자는 2대이니까, 2촌이다. 방계 가 가족과의 촌수는 자기와 상대방이 어떤 조상에서 갈려 나갔는가를 먼저 알고 자기와 그조상의 대수에다 상대방과그조상의 대수를 합한 것이 촌수가된다. 즉 형제자매는 아버지로부터 갈렸으므로 자기와 아버지는 1대이고 또 아버지와 형제자매도 1대이니까 합해서 2촌이다. 숙부와 자기는 할아버지 예게서 갈렸으므로 할아버지와 숙부는 1대이고 자기와 할아버지는 2대니까 합해서 3촌이되는 것이다.

(2)친인척관계명칭

* 부자 父子=아버지와아들,부녀父女=아버지와딸,모자=어머니와아들, 모녀= 어머니와딸, 5.구부 舅婦=시아버지와 며느리 6.고부 姑婦=시아머니와며느리 7.옹서 翁壻=장인장모와사위 *조손 祖孫=할아버지와손 *형제=남자동기끼리. *자매=여자동기끼리 *남매=남자동기와여자동 *수숙 嫂 淑=남편의형제와형제의아내
동서=자매의 남편끼리.형제의아내끼리-정확하게는 동시
숙질=숙부모와조카
종숙질또는당숙질=5촌아저씨와5촌조카
종형제=4촌끼리
종자매=4촌남매끼리
재종형제=6촌끼리
재종숙질=7촌숙질
삼종형제=8촌끼리 * 종(從)은4촌을뜻한다. 再者 다시재 이다.즉 다시 한번이라는 뜻이다.그러므로 재종이라고하면 4촌에서 다시2촌을 더하니 까6촌이되고 3종이면다시2촌을 더하니까 8촌이된다.거기에 숙이붙으면1촌더가해진다.즉 종숙이라고하면 4촌+1촌=5촌이되고 재종숙 은6촌+1촌=7촌숙이된다, 이와같은이치로 조형은 형제항렬과 마찬가지로 짝수이다.조부가 2촌격이라고하면 종조부는4촌격이고 제종조부 는6촌,3종조부는8촌격이다.그리고 8촌이내는 당내지친(當內至親)이라하여 같은집안으로 취급하로8촌이상은 당외족친 이라해서 먼일가친척으로 취급한다.

구생 舅(生男)=외숙과생질

내종또는고종=고모의자녀

외종또는외사촌=외종(외숙자녀) *내외종 외숙의자녀와고모의자녀가 서로를 말할 때 한쪽은 내종이되고 한쪽은 외종이 된다.이종=자매의자녀 끼리 *이숙질 이모와이질 *고숙질 고모와친정조카 *처질 아내의친정조카 생질=자매의자녀 *처이질=아내의이질 이질=이모의자녀 이상의칭호 는 모두남자의 경우이다. 대상이 딸 일 경우는 친호밑에 女를 붙이고 장가온 사위에게는 壻를 그리고 사집은 여자(며느리)에게는 婦를 붙인 다. 질녀 질서 질부 등이다.

4. 전통사랑(한복과김치)

현재 우리들의 의식주 생활은 너무 서구화 되어버려 이 나라가 과연 한국인가 하고 의심할 정도가 되었다. 아파트 침대에서 자고 이러어나 면 빵과 우유와 커피로 아침식사를 때우고 양복이 나 양장을 걸치고 직장에 나간다. 거리에는 온통 외국어 이름 이나 영문으로 된 간판이 걸 려 있다. 우리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 세상은 이렇게 변해 버린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들에게 민족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정신 문화가 풍부한 인도나 민족의식이 강한 아랍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 이제 우리들도 늦었으나마 겨레의 전통에 대해 눈을 떠야한다. 휴일이나 경조사 때는 남녀 노소가 밀것없이 한복을 즐겨 입고 거리를 활보하며 자녀들에게는 김치,메주, 장,떡 등 여러 가지 전통적인 것을 가르쳐주어야한다.뿐만아니라 살아있는 교육이 되도록 가정에서 이런 것들을 자주 만들어 먹어야 한다. 우리들이 아무리 서양 흉내를 낸다해도 결코 서양 삼은 되지 못한다. 서양문화가 합리적이고 편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남의것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그리 고 정신없이 따라가다가 보면 나중에는 쓸개마저도 잃어 버리게됨을 알아야 한다. 다소 불편하고 비합리적인 면이 있더라도 우리 것을 조중 하게 실천하고 간직할 줄 알아야 한다

제4절 사회생활예법

1.자기소개

자기소개는 말로도 할수있으나 최근에는 명함을 교환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있다.명함을 교환할때는 아랫사람이 웃어른에게 남자가 여자에게 손님이 주인에게 먼저 주어야 한다. 자기에게 명함이 없으면 사과하고 상대가 요구하면 백지에 적어서 주어야한다. 첫인사에서 상대가 자기 를 충분히 알수 있도록 명확히자기소개를 해야 한다. 이름을 말할때는 무슨자 무슨자 라고 확실하게 가르쳐준다.

2.편지에절

(1) 쓰는법

가. 용어는 직접대화때 보다 간절하고 정중한 용어를 쓴다. 직접대화시에는 아버지 어머니 라하지만 편지에서는 어버님 어머님 부주 모주 이 라고쓴다.친구도 직접 대화시에는 야 너 라고 하지만 편지에는 형 이라고 한다.

나. 순서는 첫머리에 받는사람 즉 아버지님께올립니다 라고쓰고 계절과 상대편 안부를 묻는다. 그리고는 자기안부와 근황을 전한다음 주목적인 용건을 말한다. 이때 반드시 아뢰올말씀은 하고 시작하는 말을 쓴다. 그리고는 상대방이 앞으로도 더욱 안녕하기를 빈다는 끝맺음을 하고 마 지막으로 날짜와 이름을 쓴다.

(2) 봉투쓰는법

상대편이름밑에 귀하 좌하 예게 앞 등에게 맞게 쓰고 상대편주소, 성명, 우편번호와 자기주소,성명 우편번호도 분명하게 쓴다.객지에 있는 아 들이 부모에게 편지를 쓸때는 부모의 이름을 쓰기가 곤란하므로 대신 자기이름을 쓰고 ○○○本家入納 이라고쓴다.

3. 경조사부조 (慶弔事扶助)

부조 풍습은 예부터 우리민족의 미풍양속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나 최근에 이르어서는 오히려 골칫거리 로 범해버렸다. 경제덕으로 모든 궁핍했던 농경사회에서는 실시일만으로 어려움을 도와주었다. 그러나 풍요를 만끽하고 있는 요즘 사회에서는 남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없는 것이다. 모두들 자기 형편에 맞추어서 경조사를 치르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조는 더욱 성행하여 큰 악습으로 변져가고 있다. 모두가 이 악습을 없애는데 노력해야 한다. 부조란 당사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자는데 있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집에는 부조를 성심껏하고,

돈있고 권세있는집에는 하지않는것이웁다.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와 반대로 권세있고 돈많은 사람에게는 더많이하게되니 확실히 모순된일이 다. 이제 부조란 관습은 우리사회에서 없어져야할 때가 온 것이다.모든 국민들이 다가가 이미 했던 부조금을 회수해야겠다는 생각을 단념하고 과감히 포기한다면 이런 악습을 차차 없애지게 될 것이다

. 4.축의금서식

돈으로 부조를 하거나 기념품이 될만한 선물을 보낼때에는 단자(單子)를적어 봉투에 함께넣어보낸다. 용지는 흰색이 좋으며 색종이를 쓸경우에는 고상하고 밝은색이 좋다.종이를 접을때는 축하문구와 상대방의 성명이 쓰여진 곳에 접은 줄이생겨지지 않게해야한다.

(1) 서식 (축의금서식) (단자를 쓰서 넣을 경우) 1. 결혼축의금서식 단자 예

爲 ○ ○ ○ 君(嬢) 慶 賀 婚 姻 ○ ○ 賀拜

단자에(單字) 봉투앞면

爲

○ ○ ○ 君 (嬢)

慶 賀 婚 姻

謹 祝 幸 福

賀 儀 金 ○ 원

年 月 日

○ ○ ○ 賀 拜 봉투뒷면은 주소 성명 연락처 를쓴다.

爲 ○ ○ ○ 先 生 님 慶 賀 壽 筵 謹 祝 萬 壽 賀 儀 金 ○ 원 ○ ○ ○ 賀禮

2.수연(壽宴)

祝 壽 宴 一 金 ○ 원 年 月 日 ○ ○ 謹呈

단자 예1 단자 예2

祝 壽 筵 ○ ○ ○ 先 生 吉 宴 所 入 納

봉투 앞면

주소 연락처 ○ ○ ○ 謹呈

봉투 뒷면

3.弔儀 (조의)
爲 ○ 大 夫 人 喪 次 弔 儀 金 ○ 원 年 月 日 ○ ○ ○ 哭 拜
단자 예1 봉투앞면

봉투앞면 예2

봉투뒷면은 주소성명 연락처를 쓴다.

弔 儀 ○ ○ ○ ○ 宅 護 喪 所 入 納
◎ 대. 소상 에는 봉투에도 喪次를 대 (소) 상(祥)으로 한다.

時儀를 奠儀 로 哭拜를 再拜 로한다.

단자에 羞 = 반찬수 奠=제사지낼전

爲 ○ ○ ○ 大夫人 大 (小)祥 欽 慕 遺 德 至 誠 奠 羞 奠 儀金 ○ 원 년 월 일 ○ ○ ○ 再拜

봉투만사용할 경우

봉투앞면

부 의 ○ ○ ○ 맥 호 상 소 님 입 (일금 ○ 원)

제5절 수연례(壽筵禮)

1. 종 류

- (1) 육순(六旬); 60세때의 생일이다. 旬은 열(十)을 뜻한다. 여섯 개니까 60이된다.
- (2) 회갑(回甲); 61세의 생일이다, 60갑자를 다지내고 다시 태어난 해의 간지(干支)가 돌아왔다는 뜻이다.
- (3) 진갑(進甲); 62세의 생일이다.. 다시60갑자가 시작한다는 뜻
- (4) 미수(美壽); 66세의 생일
- (5) 칠순(七旬)또는 고희(古稀);70세의생일 人生七十古來稀 라는 글에서 따온 말이다.
- (6) 희수(喜壽); 77세의 생일.희자를 초서로 쓰면 77이되는데서 유래 되
- (7) 팔순(八旬; 80세때의 생일
- (8) 미수(米壽); 88세 때의 생일 米 자가88을 뒤집고 바르게 쓴데서 유래되었다. (9) 졸수(卒壽); 또는 구순 (九旬); 90세 때의 생일. 추자를 초서로 쓰면 90이라 쓰여지는데서 유래 되었다. (10) 백수(白壽) ; 99세의생신, 白자가 百자에서 일(하나)를 뺀글자이기 때문에 99로 의제(擬制)해서 말한 것이다.

2. 회혼례(回婚禮)

수연은 자손이 마련하는 것이므로 혼인기념도 자손이 차리려면 30주년 이상이어야한다. 30주년(眞珠婚)=진주혼 35주년(珊瑚婚) 40주년녹옥혼(綠玉婚)45주년 홍옥혼(紅玉婚)50주년금혼 60주년 금강석혼(金剛石婚)

3.회갑잔치

헌수(獻壽)라함은 회갑을 맞은 사람에게 자년들이 큰상을 차려서 장남으로부터 차례대로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하면서 축수(祝壽)를 한다.만일 회갑이된분의부모가 아직 살아계실 경우에는 그 부모의 앞에도 큰상을 차리고 회갑이되신 내외가 부모에게 먼저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음에 자기자리로 가서 헌수를 받는다. 별도로 큰상을 못차릴 형편이면 같은 자리에서 한가운데에 모시고 먼저 술잔을 올린다음 그옆에 앉아서 헌수를 받으면 된다.

4. 식순(式 順)

*개식선언 *헌화* 인사말 *악력보고*헌수 *하사(賀 謝) *축사 *송시 *영창(永 唱) *예사(禮 謝) *폐식
부 의 ○ ○ ○ 맥 호 상 소 납 입 (일금 ○ 원)

부 의 ○ ○ ○ 맥 호 상 소 납 입 (일금 ○ 원)

爲 ○ ○ ○ 大夫人 喪 次 賻 儀 ○ ○ ○ 哭 拜

爲 ○ ○ ○ 大夫人 喪 次 賻 儀 ○ ○ ○ 哭 拜

제4장 서양식 예절

제1절 말

어떤말을 골라쓰고 그것을 어떻게 발음 하는지를 보면 그사람의 집안환경, 인품, 교육정도를 곧 알 수 있다. 교육을 많이받은 사람은 언제나 정확한 표현을 쓴다. 하지만 더러는 교육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노력으로 그런 불리한 점을 극복해낸 사람들이 있는것도 사실이다.

제2절 말소리

말은 소리가기 때문에 목소리의 높낮음에 따라 말이 풍기는 맛이 달라진다. 듣기 좋은 목소리는 말을 매력있고 경쾌하게 만든다. 낮은 목소리가 겉걸한 높은목소리보다 듣기 좋으며 전달력이 있다. 기어들어가는 듯한 백빠진 소리는 듣기 답답하다. 똑똑하지 않게 중얼거리는 소리는 듣기에 짜증스럽다. 그러나 낮은 목소리도 적당한곳에서 또렷하게 발음하면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수있으며 듣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준다. 대화를 하는데 말하는 속도가 좀 느리거나 좀 빠른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큰소리로 시끄럽게 말하는 것은 주위 사람의 귀를 거스르는 만큼 예의에 크게 어긋난다. 1. 대화요령 대화는 자기 생각이나 마음을 남과 교환하기 위한 것이므로 결코 자신의 달변이나 재치를 자랑하는 수단이 아니다. 말을 하는데에는 타고난 재능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고 간단하게 표현할수 있는 요령이 필요하다.

(1) 대화는 공평한 주고받기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저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옆 사람에게는 말할틈도 주지않고 혼자떠들어대는 사람도 있다. 끊임없이 혼자만 말을 하여 상대방을 즐겁게 만들만큼 말이 많은 것은 오히려 아무말 하지않고 가만히 있는것만 못하다. 침묵이 계속되는 것을 참지못하고 미처 정돈되지않은 생각을 뒤죽박죽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다음에 무슨말을 해야할것인가에만 정신이 팔려서 상대방이 자기에게 하고있는 예기를 듣지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가하면 성격이 소극적이어서 그리 가깝지 않은사람 과는 만나기를 아예 끄리는 사람도있다. 그러나 이런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흔히 대화를 거르치는 요인은 말이 지나치게 많은데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두려워 하거나 당황하지말고 그저 한번에 한마디씩만 이야기를 꺼내면 누구든지 대화를 잘 이끌어낼수 있다. (2) 대화에서 저지르는 실수는 거의가 말을 생각없이 내뱉는데 원인이 있다. 말을 함부로 하여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성격에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생각하는 일에 지나치게 개으르기 때문이다. 말하기에 앞서 조금만 생각하는 버릇을 기르면 말실수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 (一言(일언)삼(삼사)思(삼사))

2. 좋지않은 태도

(1) 따분한사람 상대방은 조금도 듣고싶어 하지않은 이야기를 끝없이 길게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상대방이 말하려고하거나 또 들어 내놓고 싶어하는빛을 보여도 끝까지 자신의 이야기만을 들어주기를 고집하여 듣는 사람을 따분하고 지루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있다.

(2) 우는소리를 하는사람 자신이 겪은 불행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들이 뜻밖에도 많은데 자기의 걱정거리를 남에게 길게 늘어놓지 않아야한다.

(3) 남의말을 가로채는 사람 상대방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제마음대로 끝맺게하는 버릇은 말하는 사람의 기분을 그러칠뿐아니라 그이야기를 다른방향으로 빗나게 만들기쉽다.

(4) 무턱데고 반대하는사람 누구나 자기의견을 나타낼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런데 마치 훈계라도 하듯 너는 틀리고 내가 옳다, 라는 식의 표현은 삼가해야 한다.

(5) 차별하지 않은 눈길 같이 예기하고있는 상대방을 당혹하게 만든다. 남이 얘기할때는 반드시 그 상대방을 쳐다보아야 한다.

- (6) 말참견 하는사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않고 말허리를 자르며 함부로 끼어드는 사람이 있다 말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자신의 잘못이 다른사람을 얼마나 성가시게 하는지조차도 알지못한다.
- (7) 속삭이는 사람 여러사람이 모인자리에서 한사람에게만 낮은소리로 속삭이듯이 얘기하면 눈에 거슬릴뿐더러 그 자리에 같이있는 다른사람들을 헐뜯는 듯한 느낌을 준다.
- (8) 말수가 많은사람 지나치게 말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실수와 많이한다. 대체로 이런 사람 중에는 과장하여 말하는 사람등이 있다. 잘 모르는 것을 아는체 해서는 안된다. 대화에서도 중용이 최선의 길이다. 상대방 얘기를 들어야 할 때와 자신이 이야기 할때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 (9) 캐묻기를 좋아하는 사람 돈에 관해서는 애초부터 묻지않는 것이 예의이다. 집세, 아이양육비, 가정부의 품삯 따위를 물어보는 것도 자찬가지다
- (10) 모욕적 말을 하는 사람 아무리 사사로운 작은 이야기라도 사람을 언짢게 하는말은 삼가야한다. 서양속담에 좋은 말을 할수없으면 차라리 아무말도하지마라, 는 말이있다.
- (11) 틀린 것을 바로잡아 주는사람 상대방이 문법이나 발음을 틀리게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상대방 기분을 다치게 하기 쉽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같은 말을 할기회가 오면 자연스럽게 바르게 말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틀린 것을 곧 알아차리고 고칠 것이다.
- (12) 같은 이야기를 반복 하는사람 같은 이야기를 자주 거듭하여 말하는사람이 있다. 이런경우에는 아 □그얘기군요, 정말재미 있던데요, 라고 상고기시켜주면 상대방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하고 다시 얘기하는 것을 막을수 있다.

제3절 식탁예절

식탁에서의 예절이 필요한 까닭은 첫째 서로 추한꼴을 보이지 않기위해서이다. 남의입속에 음식이 든 것을 보면 불쾌해진다. 먹으면서 소리를 내는것도 듣기 거북하고 밥상을 지저분하게 어질러놓는것도 비위가 상한다. 둘째로는 식사하는사람과 그옆에 다른사람들이 모두 편안하게 식사하기위해서이다. 셋째는 여러사람 앞에서 자신에게 시선을 집중시킬만한 짓을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의자를 질질 끌거나 흔들거나 접시에 나이프와 포크가 부딪치는 소리를 내는 따위 행동은 옆사람을 짜증나게한다.

(1) 식사준비가 되면 집 밖에서 하는 모든 만찬에서는 여자를 남자의 오른쪽에 앉힌다. .일요일이나 그밖에 휴일에 집안에서 갖는 특별한 만찬에서는 아들이 없으면 남편이 아내의 왼쪽자리에 앉지만 흔히들 맏아들이나 다른 아들이 어머니의 왼쪽 자리에 앉는다. 그러나 날마다 하는 가족식사에서는 딸들은 오느데로 자리에 앉는다.

(2) 자세

식사에서 가장중요한 자세는 의자 등받이에 가볍게 기대고 꼳꼳하게 앉는 것이다. 식사를 하지 않을때에는 손을 무릎위에 올려놓아도 좋다. 식탁에서는 손으로 얼굴을 만지거나 굽적거리거나 머리를 만져서는 안된다.. 식사를 하는동안에는 식탁에 팔꿈치를 올려놓으면 안된다.

(3) 냅킨

일반적으로 의자에 앉자마자 곧 냅킨을 무릎위에 올려놓는다.하지만 정식만찬에서는 안주인이 먼저 냅킨을 무릎위에 놓을때까지 기다려야한다. 냅킨을 식탁에서 집어들고 두손으로펼쳐 무릎위에 올려 놓되 크기가 낙낙하면 미끄러져서 떨어지지않게 한쪽 귀퉁이를 자리맡으로 끼워 넣거나해서 되도록 안전하게 펴 놓아야 한다. 그리고 펼칠 때 보기흉하게 흔들어서는 안된다.식사가 끝나거나 도중에 식탁을 떠날때는 냅킨을 자리 왼쪽에 놓고 그릇을 치운 다음이면 가운데에 놓는다. 냅킨은 다시 단정하게 접거나 구겨놓아서는 안되고 펼쳐지지 않을만큼 헐겁게 접은 상태로 식탁에 놓는것이좋다.만찬회에서는 안주인이 냅킨을 식탁에 올려놓으면 식사가 끝난다는 신호이므로 손님들도 따라서 냅킨을 식탁에 올려놓는다. 손님이 먼저놓으면 안된다.

(4) 식사를 시작할때 몇사람이 앉는 작은식탁에서는 좀 기다려도 음식이 식거나 모양이 나빠지지 않을 정도이면 다른사람 음식이 다 나올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먹는 것이 겸손한태도이다. 이 경우 안주인이 먼저 식사를 시작하면 모두 뒤를 따른다.그러나 사람들이 많이모인자리에서는 모든사람들이 다올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5) 소금 좀 이리주세요 식탁위에 있는 무엇을 집으려고 옆사람의 앞을 가로 질러 팔을 뻗치거나 식탁위로 잔뜩 몸을 내밀어서는 안된다.손에 닿지 않는 물건은 그물건에 가장 가까이 앉아있는 사람에게 소금 좀 이리 주시겠습니까 하고 부탁한다.그러나 식탁위에 반드시 놓여있어야 할 것인데 안주인이 잊어버려 미처 놓지못했다고 판단되는것이라면 몰라도 희귀한 것이면,안주인이 마련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부탁해서는 안된다.

(6) 제손으로 덜어먹기 음식을 스스로 덜어서 담을때는 흘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포크와 스푼을 다루어야 한다. 토스트조각위에 무엇이 얹혀 나오면 통째로 큰접시에 집어들어야한다. 다만 비둘기 나 매추리 고기를 토스트에 얹은 것은 토스트를 남겨두고 고기만 집어 들어야 무방하다. 위에 무엇을 얹은 토스트는 스푼으로 받쳐 들고 토스트로 눌러 떨어지지않게 제그릇에 덜고 토스트가 먹고싶지 않으면 그릇한쪽에 남겨둔다.음식을 두 번째로 받고자 그릇을 식탁의 주인 자리로 보낼때는 나이프와 포크를 그릇에 남겨두고 떨어지지않을 만큼 안쪽으로 걸쳐 놓아야 한다.

(7) 음식을 거절할때 특별히 싫어하거나 자기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이 나오면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하고 공손하게 거절한다. 그러나 거절할 수가 없을때는 음식을 모두 조금씩 받아서 그것을 거의 먹지않았다는 것이 눈에 잘뜨이지않게 그릇 여기저기에 흐뜨려 놓는다. 만일 건강상 이유 때문에 거절할 경우에는 조용히 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시킨다.

(8) 나이프와 포크 다루기 가. 바깥에서 안쪽으로 ; 나이프와 포크는 맨바깥쪽에 놓여있는 것부터 차례로 쓰기시작하여음식을 한가지씩 먹을 때마다 안으로 옮겨간다. 그러나 만일 잘못차려져 있을 때는 식사하는 사람이 알맞은 것을 찾아서 써야한다.주된요리를 다 먹고나면 나이프와포크는 왼쪽위에서 오른쪽아래로 대각선을 지어 나란히 그릇위에 놓는다. 손잡이는 접시 가장자리에서 조금 밖으로 나오게 한다.후식용 스푼이나 포크도 같은 위치로 놓되 후식이 굵달린 그릇이나 작고 깊은 그릇에 담아 받침접시에 놓여 나오면 먹고난 다음 스푼을 받침접시위에 놓고 그릇이넓직하고 얇으면 스푼을 그속에 넣거나 그밑의 접시에 놓거나 마음대로 해도좋다. 나. 나이프와 포크사용법 ; 고기를 자른다음에포크를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옮기는 미국식과 포크를 그대로 왼손에 쥐고있는 유럽식이있다. 그러나 왼손에 그대로 쥐고먹는 것 이좋다. 다. 미는 것 ; 식사할 때 딱딱한 빵껍질 조각만큼 음식을 포크에 밀어엮기 좋은 것은 없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나이프를 써도좋다. 즉 나이프를 오른손에 쥐고 칼 날끝으로 음식을 입에 넣기 좋을 만큼 모아서 포크등에 밀어넣는다.

(9) 먹는방법

가 후식

;후식은 스푼이나 포크, 아니면 두가지를 함께 사용해도 좋다. 삶은 과일은 포크로 고정시키고 스푼으로 잘라먹는다.즙이 많은 과일은 껍질을 벗긴다음에 나이프와포크로 먹지만 즙이 많지않은 과일은 손으로 잘라먹어도 된다. 후식을 먹을 때 무슨음식이든 손으로 먹으려면 얼굴에 범벅을 하지않고, 또 즙을 빨아먹는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손가락에 묻히지 않고는 먹을수 없을 경우엔 포크를,쓰고 필요하면 스푼이나 나이프를 사용해서 먹어야 한다.

나. 스프

; 맑은수프든 걸죽한수프든 손잡이가 달린그릇에 담겨 나오면 한두숟가락 떠먹은 뒤에 스프가 알맞게 식으면 거룻을 집어들고 먹어도 좋다.손잡이가 두 개 달려있으면 두손으로 들고 먹고 스푼으로 떠먹고싶으면 그래도된다..스프잔이나 접시는 다같이 밑에다 받인접시를 받쳐서 내놓는다. 잔에 담았을때는 다 먹었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스푼을 받침접시위에 놓고 스프를 담아낼때는 스푼은 받침접시가 아니라 스프접시위에 놓는다.

다. 버터와빵 ;

빵은 손가락으로 먹기좋은 크기로 잘라서 먹지만 반드시 한입에 드러갈 만큼만 잘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버터를 바를때는 버터와 빵을 담은 접시나 받침 접시의 가장자리에 빵조각을 대고 버터 나이프로 한입에 먹을 만큼만 바른다.버트나이프가 없으면 다른 나이프로 쓸 수 있다.

빵을 손바닥에 납작하게 펴놓고 손을 높이 치켜든 채로 버터를 발라서는 안된다.

라. 젤리와 잼 ;

젤리와 잼도 토스트나 빵에다 나이프로 바른다. 비록 야채에다 버터를 바르거나 고기에다 제리를 바르는데는 포크를 쓰지 않는다. 스푼이 없으면 나이프를 쓸수밖에 없다. 마. 생과일 먹는법; 과일먹는도구로는 과일칼 과 포크와 손가락을 씻는 핑거보울이 있다. 음식점에서는 나이프가 없으면 달라고 한다. 사과와배는 칼로 네토막을 낸다음 씨를 골라내고 손가락으로 집어먹는다. 껍질을 싹허하는 사람은 벗기고 만일 배에 즙이많으면 칼로 먹기 좋게 잘라서 포크로 먹는다.

제4절 식사때 해서는 안되는 규칙

가.

오른손으로 식사를 하면서 왼팔로 접시를 감싸면 안된다.

나.

식사후 그릇을 밀어내면 안된다. 주인이 치울때까지는 그릇이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 음식을 먹은사람이 스스로 그릇을 챙겨야 할때는 일어

나서 부엌으로 옮긴다.

다.

몸을 뒤로 젖히며 다먹었어요 등의 말을 하면 안된다.포크 나 스푼을 내려놓으면 그것으로 끝났음을 안다. 라.

입안에 음식이 들어있을 때 음료를 마시면 안된다.그러나 커피를 마실 때 다른사람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입안에 조금만 남아 있을때는 괜찮다.

마.

음식점에서 식기를 뺏으면 안된다.만일 더러운 식기가 눈에 띄면 시중꾼으 불러 그것을 보이고 바꿔달라고 한다.

바.

식탁에서는 이쑤시게를 이용하면 안되고 손가락으로 잇세에 낀 음식물을 쑤셔데서도 안된다. 도저히 거북하면 실례하겠습니다 고 말하고 화장실로 가서 그것을 없애거나 식사가 끝날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쑤시게를 달라고 해서 처리한다.

사.

여자는 유리잔의 가장자리나 그릇에 립스틱이 묻으면 보기에 흉하니까 식탁에 앉을때는 립스틱을 째지게 바르면 안된다.

아

술잔이나 물잔을 집어들 때 그것을 손가락으로 집어들면 안된다.

자.

잔에다가 손가락을 꽂아두면 절대 안된다. 보기에 흉하고 사고의 위험이 있다.

차.

음식이 반쯤 남아있는데 스푼이나 포크를 들고 대화를 하면안된다. 카. 무슨음식이든 조금씩 떠서 한입에 먹어야 한다. 타. 식사를 하기전에 그릇에 담긴 음식을 잘게 썰어놓으면 안된다.음식이 뒤범벅이 되어 그릇이 지저분해진다. 어떤음식도 잔뜩 먹으면 안된다.

제5절 어린이 교육

아이들은 본디 자기 중심적이어서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 남과 즐겁게 지낼줄알고 사랑 받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어릴적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 생각할 줄 알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것이 곧 바른 예절을 익히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어른은 한결같이 아이에게 예의범절을 필히 가르쳐 주어야 한다.

1. 어른의 태도

아이 앞에서 그아이의 나쁜점을 예기하는 것은 좋지않다.아이가 실수한 것을 가지고 웃음거리로 삼아서는 안된다.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받아들이려면 아이가 무엇을 할수 있고 무엇을 할수없는지를 먼저 파악해내야 한다. 아이에게 는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아이의 능력을 알잡아 보거나 부모가 무엇이든 아이일을 대신 해주면 아이가 스스로 노력하려고 하지않게 된다. 반대로 아이능력에 지나친 기대를 해서도 좋지않은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 이므로 하나의 인간으로서 관심을 갖고 대하며 아이의 능력에 맞춰서 집안일을 맡기고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는좋은말로 꾸짖어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 요즘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흔히 말하는데 그것은 부모들이 무턱대고 아이의 동무가 되어주려고만 하는 풍조 때문이다. 이런 옳지못한 풍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나 손윗사람이 방에 들어와도 일어날줄 모르는 좋지않은 버릇을 갖게된다.부모가 무엇보다도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점은 아이들은 생활태도와 예절을 하나에서 열까지 부모로부터배운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2. 아이들 사회

아이들은 같은 또래의 다른 아이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하고싶어한다. 특히 윗차림놀이 대화행동 등에서 더욱 그렇다. 아이들은 그들 세계에 제 나름대로 순응하기 때문에 이런경향은 너그럽게 보아넘겨야 한다. 그러나 시험이나 시험에서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하고서도 (다른 아이도 모두그렇게 하는데... 라고 말하여) 정당화 시키려고 할때는 꾸짖어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 부모가 후련한 본을 보여줌으로써 잘못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3. 공정한 태도

아이가 학교에 드러가지 전부터 공정한 태도를 익혀서 다른사람의 물건이나 권리를 아끼고 존중할줄을 알며 혼자만이 옳다는 생각을 갖지 않

도록 가르쳐야 한다. 자기가 가지고 노는 물건을 나누어 가질줄 알고 자기 장난감을 아끼듯이 다른아이의 장난감도 소중히 다룰줄 알며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남보다 낫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

4. 용돈

아이가 혼자서 과자 따위를 사먹을수 있는 나이가 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때마다 용돈을 주어야한다. 그 댓가로 심부름이나 자기방 청소같은 가벼운 집안일을 시키는 것이 좋다. 아이에게 돈을 갖게 하지 않으면 돈의 값어치를 모르고 돈을 스스로 알아서 꼭필요한곳 쓰게한다. 용돈은 다른 아이들이 받는만큼 주는것이 옳다. 지나치게 많이 주거나 적게 주면 아이가 친구와 어울려 지내는데 어려움이 따르게된다.만일 유익한일을 하려고 열심히 돈을 모으는 아이에게는 집안일을 돕게하여 그 댓가로 돈을 얼마씩 주거나 용돈에 따로 이름을 붙여서 저금에 보태게 하여 사기를 토크어주면 아이는 즐거운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돈을 아껴서 저금을 하게 된다.

5. 규칙따르기

부모는 아이가 어릴적부터 정해진 규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가르쳐야 한다. 어떤 부모들은 아주 어린 아이에게 스스로 모든일을 판단하도록 가르치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처사이다. 어린아이들이 반드시 맨처음으로 익혀야할 규칙은 안돼 라는말에 그데로 따르게 해야한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금지사항은 물건을 부수지못하게 하는일 이다. 이때에도 꼭 단호한태도로 아이의 행동을 금지시켜야한다. 이밖에 때에따라 알맞을 정도로 금지하되 그것이 진실로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금지하는것인지 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이의 행동을 규제해야할때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한다. 첫째 아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둘째 다른사람의 물건도 수중하다는 것을 일깨우기위해서 세째, 아이에게 좋은것과 나쁜 것을 판가름을 하는 능력을 가르치기 위해서다. 그밖에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더라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사출만한 경제적여유가 없을 때, 그리고 타당한 이유가 없을때에는 아이의 행동이나 의사를 규제한다. 그러나 어른의 화가나서 아이를 혼내주려고 하거나 성가신일을 피하거나 귀찮아서 금지하는일 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아이가 처음에 안돼 라는 말에 따르는 것을 익힌다음에는 한번안된다고 한 것은 끝까지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중간에 쉽게 태도를 바꾸는 것은 안된다. 그러나 처음에 안돼 라고 했더라도 그것이 옳지않거나 그이유가 해소되었을때는 반드시 태도를 바꿔 해되된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이를 옳게 가르치는 것이다.

6. 벌(罰)

아이를 기르는 부모는 자기나름의 룰(규칙)을 정해놓고 거기에관해서는 한결같은 태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의 태도가 한결같지 않으면 아이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가늠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안된다 고 정해놓은 규율이 힘을 잃게된다. 아이가 제잘못이 크고 작음을 구별할수있게 잘못된 정도에 따라 벌의 차이가 있어야한다. 아주 작은 잘못에 부모가 호되게 벌을주면 정말로 큰잘못에 대하여서는 알맞은 벌을 생각해내기가 힘들다. 그렇게되면 아이는 큰잘못과 작은 잘못을 판가름하는 능력을 잃고만다. 벌의형태는 잘못된 일과 관련지우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수박씨를 아무데나 마구버리는 아이에게는 한동안 수박을 못먹게하는 벌을 주는 것이 좋다. 아이가 아주 위험한 장난을 할때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벌을 주어야한다. 종이나 석유에 불을 붙여 그불이 얼마나 빨리 번지는 가를 직접 보여주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나서 아이가 아끼는 것을 회수해버리는등 무거운 벌을주어야한다. 아이를 때리는 벌은 아무리 여러차례 타일러도 듣지않거나 지나치게 나쁜짓을 할때에만 맨마지막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부모는 다른사람이 있는자리에서 아이를 때리는 것은 삼가야한다. 또 심하게 때리거나 화가나는데로 때리면 그것은 벌로서의 교육적 가치가 하나도 없는 폭력이 되고만다.

7. 자기일은 자기스스로

가.

몸단장 아이가 제스스로 밥을 먹을수 있게되면 범을 먹기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한다고 가르쳐야 한다. 또 혼자힘으로 옷을 입을수 있는 나이가 되면 단추를 채우거나 신발끈이나 허리띠를 매는 것을 꼼꼼하게 가르친다. 머리빗기 이빨 닦기 목욕하기 등은 어릴적부터 버릇이 되어 몸에 베겨야한다.. 부모가 아이와 함께 몸단당을 하거나 옷맵시에관하여 이야기하거나 아이가 스스로 몸단당을 하는 것을 보고는 크게칭찬을 하여야 한다. 말끔한 옷차림을 할수있게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잘하도록 북돋워주는 정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아이에게 지나친 옷치레를 시키는 것은 좋지않다. 학교에갈 때 입는옷도 다른아이들과 어울리게 입히는 것이 좋다. 또 아이에게 나이보다 어른스럽게 옷을 입히는것도 좋지않다. 아이는 아이답게 언제나 제나이에 어울리는 순수한 옷차림을 하게 하는 것이 좋다.

나.

정리 정돈하기 아이들은 몸단당뿐만 아니라 자기방 자기물건들을 정돈하기를 익혀야 한다. 먼저 아이가 자기방과 자기옷과 장난감을 치우는 것부터 배우도록 가르치되 아이가 스스로 정돈하기쉽게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아이가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볼때마다 칭찬하고 앞으로 더

욱 더 잘하라고 복돋워서 일하는 재미를 간도록 하는것이 좋다. 만일 아이가 자기물건을 정돈하지 않아서 방안이 지저분 하더라도 못본체 해
야지 화를 내면서 아이대신에 정리해 주어서도 안된다. 다만 혼자서 치우기가 벅찰때는 도와주기는 하되, 어른들이 너무빨리 돕지말고 아이를
거더러서 함께 정리하도록 해야한다.제물건을 스스로 챙기도록 가르치는 동시에 집안일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갖도록 가르쳐야 한다.

8.말씨

아이는 어른의 억양과 말투를 흉내 내어 그대로 따라하여 말을 배운다. 또 아이는 무엇보다도 나쁜말이나 상스러운말에 민감해서 아무리 주
의를 주어도 상스러운말을 많이 알게된다.

가.

아기말투 아주어린아이는 말보다 목소리의 가락이나 리듬에 대한 느낌이 빠르기 때문에 그나이의 아이에게는 부모나 어른들이 아기말로
얘기해주는 것이 알아듣기가 쉽다. 그러나 부모가 언제까지나 아기 말투를 흉내내어 말하면 그아이는 아이말 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며 자라서도 좀처럼 아기말투를 버리지 못하여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기가 쉽다. 그러므로 되도록 어린아이와 얘기할때는 일반용어화 표준
어를 사용해야한다.

나

어른들 부르는호칭 아이가 부모나 웃어른에게 존경심을 갖도록 하려면 먼저 말을 공손하게 하는 것부터 가르쳐야한다.부모를 부를때는 아버
지 어머니 라고부르게 하고 또 식구와 가깝게 지내는 어른들에게는 아저씨 아주머니 라고 불러야 한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말들이 점차 사라
지고 아빠 (dady) 엄마(mamy) 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볼수있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다.

미안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좀... .(please) 와 고맙습니다 (thank you) 라는 말은 서양사람들이 가장 많이쓰는 가장 중요한
말이다. 말씨는 마치 기름과 같아서 인간관계를 매끄럽게 만들어 주는 훌륭한 구실을 하므로 아이에게 입버릇이 될 때까지 되풀이 가르쳐야
한다.이 말을 가르칠때는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본보기가 되어서 아이 앞에서 써야한다. 아이와 함께 이야기할 때 부모는 늘 미안합니다 고
맙습니다,라는 말을 쓴다면 아이가 따로 가르침을 받지않아도 저절로 그말을 즐겨 쓰게될 것이다. 라. 인사 인사하는 법도 어릴때부터 가르쳐
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몸에 자연스럽게 베지않아서 어른이 되어서 까지도 인사하기가 어색하고 힘들게 된다. 갓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
에게는 인형을 쓰거나 재미있는 놀이를 만들어서 인사하거나 약속하기를 가르치면좋다.

9.말을 가로막는버릇

다른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가로막고 끼어드는 버릇이 있는 아이에게는 일부러 못들은체하여 그 버릇을 고치도록한다. 즉 부모
가 다른사람과 이야기 하고 있는 동안에 아이가 말을 걸어오면 듣는 시늉조차도 해서는 안된다.그렇지않고 아이의말을 들어주는 버릇을 길
려주면 그아이는 남의 이야기를 가로막는 버릇을 고치지 못한다.

10.식사예절

아이가 제스스로 숟가락이나 물그릇 따위를 집어들 수 있는만큼 자라면 식사 예절을 가르키기 시작해야한다. 대체로 태어난지 12개월부
터18개월쯤 사이가 가장 알맞은 때가 될 것이다. 아이는 밥먹을 때에 음식을 뱉거나 흘려서 상을 어질러 놓기 마련인데 그때마다 서둘러서
어질러 진 것을 줍거나 화를 내면 아이는 보모의 그런 반응을 오히려 재미있게 생각하여 일부러 같은 짓을 되풀이 할지도 모른다. 그럴때에
는 서두르지말고 그런짓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차근차근 가르치고 그래도 좀처럼 말을 듣지않는다면 아예 음식을 치워버린다. 또 아이가
식사하는 것이 서툴러서 조금 우습더라도 웃지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11.원손잡이

아이는 흔히 두손을 모두 어렵지않게 쓰는데 원손잡이가 될 소질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으면 오른손을 쓰도록 가르치는 것이 미래지향적으로
는 바람직하다.

제5장 혼례(婚禮)

혼례는 인간예절중 가장 중요한 예식의 하나이다. 자고로 선현 과 선조들께선 혼례는

첫째 동성 동본 혼인을 하지 않을 것.

둘째 혼인에 재물을 논하지말 것.

세째 육례를 가추어 혼례를 할 것 등 원칙을 세워두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주나라시대부터 삼서육례(三誓六禮)라하여 납채(納采),문명(問名),납길(納吉) 납폐 (納幣)친영(親迎)의 네가지예를 만들었다.

우리나라에도 이를 본받아 사예(四禮)를 치르기로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도 번거로워서 옛격식 그대로를 따르지않고 서양식 결혼을 하거나, 약간 신식을 가미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참고로 우리 전례의 풍습을 알아두기 위해 옛날 혼례식을 소개한다.

의혼

남자나이 15세로 부터30세 여자는 14세로부터20세 이르면 부모는 자녀들의 혼인을 의논 하였다. 그러나 혼인할 사람이나 혼수가 기년(紀年)이상의 상증이 아니야야 혼인을 할수있었다.

혼기를 맞이한 신랑 신부 집에서는 먼저 중매인을 상대방에 보내어 당사자의 인물, 성행, 학식, 가법,형세(경제적형편) 인품(특히 부모에관해 서) 등을 알아본다.

이밖에 동성동본 이 아닌가 혹시 악질이 없는가를 알아본후 조건들이 좋아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청혼을 하는데 이를 의혼 또는 면혼이라고 한다.

정혼이 이루어지면 신랑측의 청혼편지와 신부측의 허혼편지가 오고간다.

요즘은 새로운 풍속에 의하여 신랑 신부 사이에 약혼을 하고 간단한 약혼식을 거행한다. 신랑측의 청혼편지와 신부측의 허혼편지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같다.

2.청혼편지

우러러 사모하옵건대 그동안 존체 안녕 하시옵니까. 저의 자식의 혼사는 중매로 이미 허락 하셨으므로 저의가문으로서는 큰영광이옵니다. 이에 사성을 함께 올리오니 연길을 보내주시옵기 바라나이다. 남은 예를 다하지못하고 삼가 올리나이다.

3.허혼편지

봄철에 존채 만안하십니까. 저의 딸 혼사는 권유하심에 따라 어찌 듣지 않았겠습니까. 하늘이 정한 인연으로 생각하옵고 근배 상장하나이다.

4. 납채 (納采)

의혼이 성립되면 신랑측에서 신랑의 생년월일 시를 적어 사성 또는 사주 단자라 하여 보내는 편지와 함께 신부측으로 보낸다.

(1) 사성쓰는예

四 星

己未正月十三日亥時

源

丁丑九月十二日某貴姓 標門(지금의 싸인)

모관성명 재배 시유시추 존재동지만중양소구지제 친사개승영가한문경 행애성첨양정모길외시여 하근선복유 존소근배상장 정축구월십이일
(2) 사성보낼때편지

(3.) 간지로 쓰는 사성

사 성 기 미 (년)

병 인 (월)

병 신 (일)

정 해 (시)

原

정축구월십이일 모관성 문표

※ 사성봉피

謹

四 星 封

(4) 앞면

끊어 접은 것을 뒷면으로 가게한다.

(5) 뒷면

사성편지 글쫂 때는 가을이 늦어오는예존체 안녕하시웁기 비웁니다, 저의자식 혼사는 허락하심을 받으니 저의가문의 경사이웁니다. 사성을 올리오니 연길 회시를 바라오며 굽혀 살퍼주시웁기 바라웁고 삼가글을 올리나이다.

(6)

(7) 사성편지봉피

謹 拜 上 狀 謹

封

앞면

뒷면

사성과편지를 함께 포게어 다시 봉피를 하는 것이 중봉이다. 봉피를 만들지않고 사성과 편지를 포게어 백지종이의 귀에 놓아 맞은편 귀를 향하여 여러번 감아 넘기면 된다. 이때 사성과 편지의 위가 왼편으로 가게하여 상하를 구별하게 한다.

(8) 앞면 ※ 중봉(重封)

某 洞 某 生 員 尊 親 家 入 納 某 洞 某 生 禮 東

謹 封 丁 丑 九 月 十 二 日

(9) 뒷면

(10) 주인은 사성서간을 받들어 사당에 고하였으나 요즘은 사당을 모시지 않으니 고하지않는 다. 중봉한 예간을 사성보 홍색이 밖으로 되게 하녀 끈이 있는 반대편 귀에 놓아(위가 왼편으로 가게한다.) 보와 함께 감아 넘겨서 끈으로 맨다.

사자가 사성을 갖고 신부집에 가면 주인이 집사를 시켜 소반을 가져오게 하여 사자가 사성을 반에 올려 놓으면 주인이 받아 복향재배하고 예간을 받들어 사당에 고한다. 그리고 사자를 쉬게 하여 주식을 대접하고 혼례날을 택일 하여 회답편지를 하니 곧 허훈이다.○

택일하려고 오고 하는 시일이 늦어지면 사자를 돌려보내고 택일하여 연길(涓吉) 편지를 써서 이곳사자를 신랑측으로 보낸다.

신랑측에서 신부의 의복 침구 등을 마련한 포복을 신부택으로 보내는 풍습이 있어 이를 봉채라 하고 오 송례아고도 하여 연길택일 할 때 송례일자를 연길날짜보다 5.6일또는10여일 앞서도록 택일하여 함께 보내는 이도 있다.

涓 吉 ○ ○ 정축 시월 십일 췌卯 정축구월이십일 某 貫 姓 문표

(11) 연길쓰는예

(12) 연길편지쓰는예

엮드려 글을 받자와 삼가 살피오니 때는 늦은 가을 이온데 존재후 만안하시오니 우러러 위하던바입니다.혼사는이미 상단을 받자오니 한문의

경사입니다.연길을 올리오니 의제를 회신 하시기바라며 굽혀 살피시기 바랍니다. 봉피와 중봉은 사성의 예에 준하나 편지 봉피 앞면에 근배 사상장 이라 쓴다. 연길서간을 받으면 곧 허훈서간을 받음이니 신랑측 주인이 예간을 방들여 사당에 납채를 마쳤음을 고하고 이어서 신부측 에서 신랑의 도포와 두루마기를 짓는데 쓰도록웃지은 길이와 품을 알리니 의양 또는 의제라 한다.

(13) 연길편지 글뜻

(14)의양쓰는예

의 양 도포지은 길이 두자 두치 앞품지어 한자한치 뒷품지어 한자한치 긴동지어 한치한자 제 정축구월이십일일 모 관성 문표

(15) 의양편지쓰는예

(16)이와같이 의양을 보냈으나 근래에는 한복을 하지않고 양복만을 하는 이가 있어 양복점 또는양장점에 신랑 신부가 직접 가서 맞추게 되므로 이 편지는 하지않는이도 있다.

5. 납 폐 (納幣)

결혼식 전날에 신랑측에서 혼수와 예장을 신부측으로 보내는 것을 납폐라한다.혼수라함은 신부의 저고리와치마베를 신랑측에서 보내는 것인데 식을 올릴 때 입는 것으로 이를 윗태 라고도 한다. 혼수와 예장을 갖추어 사자를 시켜 보내는데 근래에는 친척중에 믿을 만한 사람으로 위로 삼고 젊은이를 시켜 지고 간다.

혼수함에는 백지종이를 펴고 예장과 물목을 넣으며 윗태는 함에 넣을만히게 접어서 백지로 띠를하여 감아 맞붙인 곳에 풀로 봉하고 근봉을 써서 홍단을 먼저 밑에 넣고 다음에 청단을 넣으며 청실 홍실로 같이 넣은후에 배지로 덮고 세느리대나무 두 개를 함의 새로운 길이에 맞추어 잘라서 누에고치푸심실을 대나무에 감아서 혼수가 흩어지지 않게 눌러탕게를 하고 함을 닫는다.

예식할 때 관복을 입고 전안(奠鴈)을 하였으므로 관복과 안을 넣은 함을 혼수함과 함께 포개어 큰 보로 함을 싸되 네귀를 맞추어모아 메고 종이를 감아 풀로 봉하고 근봉을 쓰고 짐바베를 둘러서 짊어지도록 한다.

(1) 물목 쓰는데

(2) 예장쓰는데

(3) 예장의글뜻

때는 첫겨울이 되었는데 존체안녕하십니까? 저의 아들 아무는 나이 이미 장성하였으나 아직 배필이 없드니 존자의 인자하신 마음으로 사랑하신 따님을 아내로 주셔서 선인의 예에 따라 삼가 폐백을 드리오니 굽혀 살피 주시기 바라옵고 삼가 절하고 글월을 올립니다.

(4) 혼수함을 지고 신부집에 도착하면 주인이 집안 젊은이를 기켜 탁자를 가져오게하여 혼수함을 내려놓으면 주인이 재배하고 젊은이를 시켜 거두어 드리게 한다.

근래에는 예식장에서 식을 올리게 되어 관복과 안 이필요없게 되어 송례(봉체)를 보낼 때 혼수와 예장을 함께 보내는이가 많다.

혼수함을 보내어 받을 때 그 광경을 보면 정중하고 엄숙하게 예를 치루어 혼인을 축하하는 것이 하객의 도리이건마는 우인대표니 무슨 대표 니하면서 혼수함을 가로채어 짊어지고 과다한금액을 우려내는 폐단이 허다히 있는데 이는 그들의 말을 들은 즉 이러한 장님이 있어야 축하가 된다고 하나 예에 장난이 있을 수 없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일인데도 그들은 어디서 배워서 온행사인지? 일생일대의 경사를 맞은 신랑 신부에게 마음의 고통과 물질적인 부담을 주게되니 한심한 일이라 앓을 수 없고 또 식자에 식이 끝난 뒤에 신랑을 납치 하다시피 하여 신랑 신부는 물론 그의 양가 부모로 하여금 술하의 경사에 먹구름을 씌우는 폐단이 왕왕 있으니 이와같은 행위는 참다운 젊은이의 행할 바가 아님을 하루 빨리 깨달아 주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 않은 바이다.

5. 친영(親迎)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혼례하는 것을 말한다. 친영에 앞서 양가 부모들은 아들 딸에게 훈계한다. 大(대)禮(례) 몇일전 또는 전날밤 아버지는 아들을 조용히 불러 앉히고 결혼의 중대성과 부부의 예절에 관하여 엄숙하게 교훈을 하고 어머니도 역시아버지의 교훈을 보충해서 여러 가지를 자상하게 가르쳐준다.

신부집 부모 교훈도 신랑의 경우와 같다. 신부 아버지는 딸에게 공경하고 삼가고 주야로 시부모의 양를 어기지 말라 훈계한다. 어머니 는 특히 첫날밤의 절차 예법 인사 식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가르쳐준다.

(1) 전안례(奠鴈禮)

전안례는 신랑을 맞아 대례를 치르는 제일 처음의 절차로 신부집에서 신랑을 맞아 들이는 의식이다.

(2) 교배례

신랑과 신부가 처음으로 상면하여 서로 예를 교환하는 의식이다. 대청이나 마당에 차일을 치고 한다.

(3) 신방 또는 신혼여행

혼례식이 있은후 신랑과 신부가 한방에서 처음으로 함께지내는 방을 신방이라 하고 그날밤 을 첫날밤이라고 한다.

그러나 요즘은 거의가 신혼 여행을 가서 여관이나 호텔에서 첫날밤을 지내고 있다. 하지만 신식 결혼을 하더라도 첫날밤만은 신부댁에서 마련한 새롭고 깨끗한 요와 이불을 덮고 자 는 것이 훨씬 더 뜻이 있을 것이다. 신혼여행은 그 이튿날 떠나도 된다.

(4) 우귀(于 歸)

우귀는 신행이라고도 한다.신부가 정식으로 신랑집에 입주하는 의식이다.옛습관으로 는 초례후 수개월 심지어는 수년씩 지낸후에 신행하는 예가 있었고 보통은 2-3일 지낸후 한다.

신부가 신랑집으로 갈 때 신부의 아버지 또는 가까운 친척이 데리고 간다.

(5) 헌구례(見舅禮)

신부가 신랑집에와서 시부모와 친척에게 첫인사를 하는 의식이다 이때 신랑집의 직계존속에게는 4배를 하고 술을 권한다.그외는 한번 절한다. 옛날에는 대청에 자리를 마련하여 병풍을 치고 시아버지는 동편에 시어머니는 서편에 앉은 후 주안상을 차리고 배례한다. 시조부모가 생존해도 시부모부처 먼저 뵈고 다음에 시조부모를 뵈게 되어있으며 그다음은 촌수와 향열순에 따라 인사를 드린다.

(6) 폐백 (幣帛)

신부가 처음으로 시부모를 뵈올때에 올리는 대추나 말린 꿩고기를 폐백 이라고 한다. 대추는 시아버지에게 꿩은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것이다. 시아버지만계시면 대추만 시어머니만 계시면 꿩만 쓴다 시부모가 안계시면 폐백은 드리지 않는다. 이모든 행사가 끝나면 신부는 신랑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게 된다.

제 6 장 상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엄숙한 일이다. 이슬픈 심정을 질서있게 표현하면서 마지막 이별을 엄숙하고 절차있게 행하는 것이 곧 상례이다. 그러나 상례라는 것은 알맞게 해야한다. 과공이비례(過恭而非禮)라는 말이 있다. 지나친공경은 오히려 예가아니다. 라는뜻이다. 그러나 종래의 우리상례의식은 허례허식이 지나쳐 3년상을 치르고나면 기둥뿌리도 남지않는다. 라는 말이 있을정도였다. 그래서 요즘은 많이 간소화 되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아직도 더 간소화해야할 여지는 남아있다.

※ 전래의 상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상례절차의목

- (1) 임종(臨終) ; 숨이 끊어지는 순간을 곁에서 지켜 드리는 일
- (2) 정제수지(整齊(제)收(수)屍(시) ; 돌아가신분의 몸과수족을 반듯하게 정제하는일.
- (3) 飯(반)습(함) ; 시신의 입에 구슬 무홍주(無(무)弘(홍)珠(주) 과 쌀을 물려주는의식
- (4) 襲(습)과 ;습이란 향나무 삶은물 이나 쑥을 삶은물로 시신을 정결하게 씻는 일이다. 습이 끝나면 림을 하는데 이때 수의를 입혀 드린다.
- (5) 復(고)復(복) ; 사람이 죽으면 혼이 몸에서 떠난다하여 그혼백을 다시 불러 몸에 붙게 한다 는 뜻
- (6) 發(발)喪(상)과입상주 ; 발상이란 이제부터 상례가 시작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정식으로 상주를 세우게 된다.
- (7) 護(호)喪(상) ; 복을 입지않은 친지중에서 상례에 밝고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가려 초종 범절 일체를 맡아서 지휘 감독케 하는데 이사람을 호상이라 한다. 초종이란 초상이 난 뒤로부 터 졸곡까지를 일컫는다.
- (8) 設(설)奠(전) ; 상을 당하고 처음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전은 술,과일 포 해로서 한다.
- (9) 부고 ;장지와장일을 친지에게 통지
- (10) 조상(弔(조)喪(상) ;이른바 問(문)喪(상)이라는 것이다. 옛날에는 조객이 弔(조)服(복)=흰옷 (白(백)帶(대)를 입고 술과 과일등의 조물과 祭(제)文(문)을 가지고 가서 곡하고 상주를 위 문한다.
- (11) 發(발)輓(인) ; 시신이 집을 떠나 장지로 가는 것을 말한다. 옛날에는 이날 새벽에 사당 에가서 하직이사를 하는 朝(조)祖(조)祝(축)을 읽는다.
- (12) 遣(견)奠(전);靈(영)柩(구) 가떠날 때 지내는 제사이다. 이 견전에 는 요즘의 영결식 같은 것이다.
- (13) 초상이 아니면 여러소항목이 있으나 이대목은 빼버렸다. 이 많은 의식을 치루자면 얼마나 많은 재물의 낭비와시간이 낭비가 있겠나를 짐작할수있을 것이다. 요즘은 많은부분이 없어지거나 간소화 되었다 반드시 치루어야하는 것 중에도 장례에 관한 것 자체는 거의 장의사 가 대행 해주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필수적인 제례의식만 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모든절차를 소개함으로서 옛 전통의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상례절차의세척

(1) 慎(신)疾(질)

부모의 병세가 위중하면 장소를 정침으로 옮긴다. 정침이란 제사나 일을 하는 안채의 방을 말하는데 요즘의 안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이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머리를 동쪽으로 해서 눕혀드린다. 명풍을 머리맡에 돌려드리고 방 안팎을 청소한다. 어린이 들이 머리 말을 지나지 못하게하고 자식은 환자의 옆을 떠나지 않는다.

(2) 遺(유)言(언)聽(청)取(취)

가족들은 조용히 운명을 기다린다. 물어봄 일이 있으면 환자가 대답하기 쉽게 간추려서 묻고 대답을 기록 또는 녹음 해야한다. 환자의 유언을 자필로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럴만한 시간적여유나 기력이 없을때는 여러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필할수도 있다. 그러나 녹음기가 있으면 녹음하여두는것도 좋다.

(3) 臨(임)終(종)

운명은 참으로 엄숙한 순간이므로 자손들은 마지막 효성을 남김없이 해야한다. 임종이 가까워오면 깨끗한옷으로 가라입혀 단정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운명할수있게 해야한다. 이곳은 평소에 입던 옷으로 흰색이나 옅은색옷이 좋다. 그리고 운명후 모셔 둘 방에는 잔세간을 치우고 정결하게 청소하여 모셔하한다.

(4) 整(정)齊(제)收(수)屍(시)

운명을 하면 울기만 하지말고 침착한 태도로 고인의 몸과 수족을 반듯하게 펴서 머리를 북쪽으로 해서 높이고얼굴에 백포를 씌우고 흠이불을 머리까지 덮어둔다 .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제수시는 먼저 눈을 곱게 감도록 쓸어 내리고 준비한 햇솜으로 입과 쉬를 막아 피가 쏟아지지 않도록하며 시체가 굳기전에 손발을 고루 주물러펴고 백포로 얼굴을 덮고 흰종이나 베천으로 좌우어깨를 단단히 동인다. 두팔과 두손은 곱게 펴서 배위에 올려놓되 남자는 왼손을 위로하고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해놓는다. 또 두다리는 곱게 펴서 두발끝을 월 가도록 똑바로 모 아가지고 흰종이나 베천으로 동여 어스러지지 않게 한다. 이때 병풍은 글씨가 앞으로 보이게 친다. 시신을 모신방에는 불을 때지말고 차게 해야 한다. 방에 불을 때면 시신이 빨리 썩기 때문이다. 임종에 응하지 못한 자손과 친지에게는 수시전에 동도 하도록 신속히 연락한다.

(5) 發(발)喪(상)과立(입)喪(상)主(주)

집안에서는 먼저 상제 즉 상을 당한 자손중에서 주상을 정하고 역복을 한다 .주상, 즉 상주는 죽은 사람의 맏아들이 되고 만일 맏아들이 죽고 없으면 장손이 만상주가 된다. 이를 承(승)重(중)喪(상) 이라고 한다.

(6) 易(역)服(복)이란 옷을 갈아입는다는 뜻이다. 이때 상복을 입는 것은 아니고 평소에 입던 화사한 옷을 벗고 검소한 것으로 바꾸어입는다. 남자상주는 흰두루마기의 한쪽팔을 빼어 소매를 늘어뜨린채 입는다. 즉 父(부)상이면 왼쪽팔을 빼고 母(모)상이면 오른쪽팔을 뺀다. 여자 상주는 검은색이나 흰색 평상복 으로 갈아입으면 된다.

옛날에는 발상때 아들 ,딸 며느리가 머리를 풀었다. 그러나 출계한 양자와 시집간 딸은 머리를 풀지않고 비녀만 뺐다.이렇게 주상을 정하고 역복을 하고 머리를 풀고, 哭(곡)을 해야만 비로소 발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도회지에서는 喪中(상중),喪家(상가) 라고 써서 문밖에 부치고 발상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장자나 장손의 상에는 그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주상이 되고 그밖의 아들이나 그밖의 손자의 상에는 그 아들이 주상이된다.

(7) 護(호)喪(상)

호상은 초종법절을 일체 지휘감독하는데 지필묵 과 백지로 엮은 공책 몇권을 준비하여 금전과 물품의 출납 문상객의 출입과 부의금의 수납을 정확히 기록하고 조문객의 접객까지 세심한 주의를 한다. 문상객의 출입을 적은 책은 부상이면 弔(조)客(객)錄(록) , 모상이면 弔(조)慰(위)錄(록) 처자상이면 弔(조)問(문)錄(록) 또는 慰(위)問(문)錄(록) 이라한다. 호상은 또 축문을 작성하고 장지 선정을하고 각종신고를 맡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상주와 연락하기 쉬운 장소에 마련한다.

(8) 上(상)奠(전)

전으로 올리는 음식은 되도록 마른음식이나 벗기지 않은과일 (아래위 만을 도려내고 쓴다) 등으로 하는 것이 정결해보인다. 여러시간 놔두는 것이므로 쉽게 변색하거나 냄새가 좋지않은 것등은 쓰지 않도록한다. 전을 올릴때는 시신을 가린 병풍앞에 제상을 놓고 백지를 깐다음 그위에다 올린다. 반드시 초혜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즐기던 음식(과일 포등)을 올려놔도 무방하다. 전을 올리는 것은 상제가 친히 올리지 않고 잡사가 대신 올리며 절은 하지않는다.

(9)영정 .향탁 (影(영)幀(정) 香(향)卓(탁))

요즘은 흰색 대신으로 영정을 모시는 일이 많다. 고인의 사진을 검은색의 틀에 끼우고 검은색리본을 드리워 전을 올릴 제상위에 올리거나 교의가 있으면 교의위에 모신다.

향탁위에는 백지를 깔고 분향할 자리를 준비한다. 상제들은 이방에서 향부리 그치지 않고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면서 향탁옆에 서있다.

(10) 부고 (訃告)

부고장은 붓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거의가 인쇄를 해서 쓴다.

※ 부고 예1

族孫 ○ ○ 大人處士(學生)沈公以宿患

○ 年○ 月 시 별세(殞命)滋以訃(부)告

○ 年 ○ 월○ 일

護喪(호상) ○ ○ ○ 喪

喪禮 月(월) 日(일) 時(시)

葬地(장지) 里(리)後(후)廬(先塋(선영)하)

예2

족질□대인처사(학생)경주김공(모)이효환

금 □ 월 □ 일 (음-월-일-시-분-어자택(--병원)별세자이부고

영결식 위 립 시

영결식장 동 번지 자택 (또는 교회)

발인 월 일 시

장지 군 면 립 후여(선영하)

하관 월 일 시

서기 년 월 일

호상 상

嗣(사)子 --

次(차)자

손자

弟(제)

姪壻(질서)

질

서

(11) 1)상주성명은 장자의 성명을 쓴다

2) 처상부고는 장자가 있어도 남편이 주상이된다.

3) 부고는 호상이 보내는 것이므로 망인의 칭호는 아버지면 대인 어머니면 대부인 할 아버지면 왕인 아내이면 閣(합)부인 이라 쓴다.

4) 늙은이가 사망했을때는 노환 젊은이가 사망했을때는 숙환 뜻밖의 죽음에는 사고급서 라쓴다.

5) 별세를 운명이라고 쓴다 殞命(운명)

6) 부고를 인편으로 보낼때는 자이전인부고 라하는 것이 좋고 신문광고, 우편일때는 자 이부고 라쓴다.

7) 망인에게 관직이 있으면 관직을 쓴다. 예컨대 [족제 - - 대인 군수 경주이공(연식)이 숙환]

8)습염(襲(습)殮(염)

시신을 씻는일은 망자가 남자일때는 남자가 씻고 여자일때는 여자가 씻는다, 목욕을 시킬 때 시신을 씻는일은 망자가 남자일때는 남자가 씻

고 여자일때는여자가 씻는다. 목욕을 시킬때는 손톱과 발톱을 잘라서 준비해둔 주머니속에 넣었다가 대렴을 할 때 관속 이불속에 넣는다.

(12)壽衣(수의)

연만한 노인이 계신 집안에서는 윤년이나 윤달을 택하여 수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수의 준비없이 상을 당했을때에는 즉시 수의부터 서둘러 만들어야한다. 수의는 비단이나 마직 등 흙속에서 잘썩는 자연 섬유로 한다.

그리고 빛깔은 대개 흰색으로 하지만 집안의 법도나 고인의 소원에 따라 화려한색깔로 만들기도한다. 수의는 살아있는 사람의 옷보다 훨씬 크게 만들어야하며 대체로 겹옷을 짓는다 수의를 바느질 할때는 실의매듭을 짓지 않는다.

(13) 飯含(반함)

상주는 곡하며 왼쪽소매를 벗어 바른편 어리에 꿸고 무공주(구멍이 뚫리지않는 구슬)3개를 담은 그릇을 받들고 생쌀을 담은 그릇에 버드나무 수저를 꿸고 들어가서 명건 으로 시신 면상을 덮는다. 그리고 시신 동편 발치로부터 서편으로 올라와서 동쪽을 향해 앉아 명건을 들고 버드 나무 수저로 쌀을 조금씩 떠서 오른편 입에 넣고 동시에 무공주를 넣는다.

이와같이 왼편과 가운데 에도넣은후 햇숨을 명주에 싸서 턱아래를 태우고 복건을 씌운다 또 充耳(충이)로 좌우귀를 막고 瞑目(명목)을 덮고 신을 신기고 심의를 건우어 여미되 옷깃은 산사람과 반대로 오른편으로 여민뒤 條對(조대)大帶(대대)를 동심결로 매고 幘手(악수)를 맨다. 이로서 습례가 끝난 것이다. 시신은 다시 이불을 덮어 시상에 모신다. 모든 기물은 태우거나 땅에 묻어 없애버린다.

(14)소. 大斂(대렴)

소렴이 끝난뒤 시신을 관속에 넣는데 이때 다섯주머니에 담은 머리털, 손톱, 발톱을 관아래에 넣는다.또 그밖에 비어 있는곳은 망인의 옷을 말아서 태운다. 이때 관 뚜껑을 덮고 영좌를 설치하고 전을 올린다.

3. 조석전(奠)과 上食(상식)

조석전은 소렴한 다음부터 시작하여 초우전까지 하고 조석곡은 대렴한 날부터 소상까지 하고 조석 상식은 성복한 날부터 대상까지 올린다. 상주이하 모든 복인은 새벽에 일어나서 각기 상복을 입고 그중 한 상제 혹은 집사가 빈소방에 들어가 주렴을 제쳐 열고 혼상덮은 주렴도 걷어 올리고 여막에 나오면 모두 곡을 하고 해가 뜬으면 아침상식을 겸하여 조전을 올리고 저녁에도 전을 올리고 저녁곡을 한다.

상식상은 생시과 같이 차려 술을 잔에 따르고 밥그릇 뚜껑을 열며 술을 꽃으며 저를 바르게 한다.

조금 있다가 국그릇을 내리고 숭늉을 올려 삼초반을 한후에 한참기다렸다가 재배하고 수저를 내리고 반개를 덮으며 상을 물린다. 그밖에도 수시로 곡을 하고 초하루와 보름에는 아침에 전을 올리니 초하루와 보름에 올리는 전이라 삭망전이라 한다.초전이나 석전이 끝나면 음식을 거두어 치우고 술과 포와 과일만 남겨 둔다.

4. 弔喪(조상)

조상은 원칙적으로 성복 후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친척이나 혹은 친한 친구가 성복전에 상가에 드나 들게 될경우에는 시신앞에 곡만 하고 절은 하지 않으며 상주에게도 인사 말만한다.그러나 성복후라도 망인과 생시에 면대가 없으면 영위는 뵈지않고 상주에게만 인사하고 절한다는 일설도 있으나 요즘은 상주에게 인사할 바에야 상주의 선어른 영위를 뵈는 것이 옳다하여 이에 따르는이가 많다.

조문객이 오면 호상은 젊은이를 시켜 빈소있는 곳을 인도하고 상주는 일어나 곡을한다. 조객은 영위를 향해 곡을 하고 재배한다음에 다시 상주에게 곡을하며 절하고 인사를 한다.

조상할 때는 가급적 화려한 의복을 입지 않으며 검소한 복색을 하고 ,올리는 물건을 향이나 양초 술 과일 포 등으로 하며 부의는 현금또는 물품으로 하였으나 한때는 의례준칙법에 의하여 금하였지만 현재에는 부의금과 함께 깊은 애도를 한다. 조상할 곳이 길이 멀거나 연고가있어 상문을 훗할시는 글로서 애도를 나타내어 부의금과 함께 조속히 송달하는 것이 예의이다.

秀才(수재)표기 亡者(망자)는 미성년자를 좋게한 이름이며 또 과거에 급제한자를 말한다.

5. 小殮(소렴)

소렴은 사망한 다음날 아침에 행한다.

세상 사람들은 염습하고 수의를 입히는 것을 잘못 알고 소렴이라 하나 다음내용이 소렴이요, 그리고 대렴은 입관을 하는 것이다. 집사가 습전을 옮긴 뒤에 삼배 17.8척으로 소렴상위에 56척을 길게 펴서 시신을 그위에 옮겨 베자락을 머리 위로 덮어 서 발끝까지오게 하여 발목쯤에서 덩거 매도록 베끝을 끊어 베끝을 칼로 찢어 각각 두 갈래로 하여 위와 아래 것을 덩거서 두 번 매고 두사람이 시체의 어깨쯤에 좌우로 각각 앉아 칼이나 가위를 두사람이 각각 가지고 서로 넘겨 쓰지않는다.

남은 베끝을 잣대로 시체 어깨 밑으로 밀어넣어 양편에서 서로 덩겼다놓아주고 맞은편에서도 덩겼다 놓으면 베끝이 잘 퍼진후에 서로 맞부쳐 맬수있도록 베끝을 끊어서 양편에서 각각 세 갈래로 찢어서 어깨쯤에 부터찢은 베끝 첫 갈래를 서로 넘겨주어 양편에서 다 얹은 자세로 두발을 시체에 단게하여 힘이되게 하여 덩거 매되 명목썬운 베끝을 매는데 들어가도록 손질하여 매되 백지를 접어 띠를 하여 매는 밑에 넣어 맨 다음에백지면 위에 가닥을 아래로 내려 매듭이 보이지 않게 하고 다음 가닥과 또 다음 가닥도 이와 같이 매고 두 번째 베끝을 허리밑으로 넣어 두끝을 각각 두갈래로 찢어 두 매듭을 매니 모두 일곱매듭이다. 이로서 소렴을 마친 것이니 시신을 시상에 모시고 애곡한다음에 남녀상제 각각 별실에서 머리 푼 것을 걷어 삼끈으로 올려 묶으며 남자는 포두건을 쓰고 소매 끼지않은 것을 바로 하여 끼고 자리에 나아가 애곡하로 집사는 손을 씻고 음식을 가져와서 영좌 앞으로 나아가 염습할 때 올렸던 음식을 거두고 새음식으로 바꾸어 차린 후에 술을 부어 올리면 모두 재배하고 상주는 애통망극할 뿐이오 절은 하지않으며 이로부터 대곡을 하여서 곡소리를 끊지않는다.

채최 이하로 같은 5대조인 자는 다른방에서 면복을 입는다 하였으나 근세에는 행하는이가 적다.

6. 大斂(대렴)

소렴이 끝난다음날(죽은지3일째날)에 입관하는 것을 대렴이라 한다.

관 밑바닥에 칠성판을 깔고 地褥(지욕)을 깔다 하였으나 요즘은 칠성판과 지욕을 쓰지않고 천금과지요를 합쳐서 만든 깍이불을 쓴다. 집사는 먼저 영좌와 소렴전을 곁으로 옮기고 관을 드려와서 시상의 서편에 놓고 관과 시상 사이에 깍이불을 펴두고 그위에 시신을 옮겨 양편상중하에 한사람씩 깍이불을 잡아 여섯사람이 힘을 같이하여 시신을 들어 관속에 넣되 관속에 시신의 머리닿는곳에 백지종이에 황토흙을 싼 배개를 넣어두고 조금도 기울지 않게 조용조용히 내려놓고 깍이불끝을 먼저 아래쪽부터 거두어 덮고 다음에 위쪽 다음에 왼쪽 다음오른쪽 순으로 덮는다.

이 때 머리털고 손톱 발톱을 넣은 오냥을 관의 좌우에 넣고 그 밖에 비어 있는곳은 깨끗한 황토흙을 종이에 싸서 채운다. 죽은이가 평소에 아끼는 물건이라도 금옥같은 보배스러운 것은 넣치 않는다. 이는 도둑의 우려가 있는 연고이다.

다음에 관 뚜껑을 반만 덮고 남,녀가 통곡 한뒤에 관 뚜껑을 다덮고 은쟁을 쳐서 박는다.

두터운 유지오 관을 싸서 노끈으로 묶은 다음에 시상에 옮겨놓으며 병풍을 두르고 전을 올리되 소렴할때와 같이 한다. 이로부터 조석으로 곡을 하고 대곡은 하지않는다.

7. 殯所(빈소)

대렴이 끝나면 빈소를 꾸미되 방을 도벽하고 지천을 치고병충을 두르고 교의에 혼상을 모시고(사진도 같이모시면 더욱좋다.)그앞에 제상을 놓아 촛대 한쌍을 놓으며 그앞에 향탁을 두어 향로는 서에 향합은 동에 모사는 향노 향합 앞에 놓으며 망인의생시에 쓰던 의관과 신발 등을 제상 곁에 좌우에두고 재상 앞에 주렴을 치고 문밖에 동남편에 고석을 펴두고 남녀 상제의 작지는 외간상에는 대 작지오 내간상에는 오동나무 작지를 한다. 오동나무가 없으면 버드나무로 한다. 작지는 나무뿌리가 밑으로 가게 집는다. 뿌리를 구별하기쉽게 밀통을 모나게 깎기도한다.

8. 成服(성복)

성복은 대렴한 다음날 그러니 죽은지 4일째 되는 날이 된다.

3일 또는 4일장일 시는 때에 따라 할 수 있다.

이날이 밝으면 마당에 자리 펴고 동서로 탁자를 나누어 두고 성복할 제복과 요질 수질 두건 喪杖(상장)등을 남자의것은 동편에 여자의것은 서편 탁자위에 각각 엮어두고 남녀 복인이 곡을 하며 자리에 나와 북쪽을 위로 하여 복의 차례로 서서 사다가 남자 상제에게는 두건 위에 굴

건을 쓰고 그위에 수질을 매고 배바지 저고리에 배 두루마기를 입고 그위에 제복을 입히며 요질을 두르고 집신신고 작지를 짚도록 한다. 부인도 여 시자가 배 치마 저고리에 제복을 입으며 수질 요질을 두르고 작지를 짚게 한다.

양자 간 아들과 출가한 딸은 작지를 짚지 않는다.

기타 복인은 복에 따라 제각기 입고 쓰로 한 다음에 남녀 복인 이 다같이 곡을 하며 서로 향해 엎드려 머리를 숙여 곡을 한참 한다. 이는 같이 복을 당했던만 정식으로 서로 의 복 인사를 하는 것이 예의이다.

상향곡 을 끝이고 일어서서 존장이 계시면 그앞에 나아가 곡을 하면 존장도 대곡한다. 다음에 영좌 앞에 나아가 곡을 한다.

옛날에는 영좌 앞에 절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풍습에는 아침에 상식 제물을 올리고 성복을 하기 때문에 절을 하기도 하지만 이는 예의에 맞지 않다고 할수 있다.

성복하는날에 주인 , 형제가 비로소 죽을 먹는다. 상복 asem는 법은 다 말할 수 없으므로 생략하고 다만 참치에는 옷의 가를 호(접어서 꿰매는 것) 지 않고 재치에는 가를 한다.

모든상복은 삼베로 만들고 수질과 요질은 삼끈을 꼬아서 만든다.

1) 運柩(운구); 상여가 묘지로 가는 것을 뜻한다. 옛날에는 묘지 까지 가는도중에 路祭(노제)를 지내는 일이 있었다. 즉 고인과 친한 조객이나 친척중에서 뜻이 있는 사람이 제물을 준비해와 서 지내는 것이다.

2) 下官(하관)과成墳(성분) ; 하관이란 관을 땅에 내려서 묻는 일이고 성분을 흙을 덮어 사디고 다져 그위에 띠를 입혀 묘를 완성시키는 것을 뜻한다.

3) 反哭(반곡) ;성분을 사고 난후 상주이하가 영車(거)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곡하는 것을 말한다.

4) 虞祭(우제) ; 장사를 끝내고 돌아와서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초우 제우 삼우 가 있는데 초우에서부터가 정식 제사의식이 된다.

5) 上食(상식) 과 朔望(삭망) ;초우를 마치면조석전은 올리지 않고 아침저녁상식만 올리고곡한다. 그리고 매달 음력 초하루와 보름날 아침에 삭망제를 지낸다.

어린이가 상복을 입을 때는 두건과 수질을 쓰지 않으나 작지는 짚는다. 옛날에는 20살이되면 장가는 아직 가지 않더라도 관례를 하여 관(갓)을 쓰고 수질을 쓰는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9 천구(遷(천)柩(구))

발인사기 하루 전날 아침전을 올릴 때 천구할 것을 고하나니 집사가 술을 따르고 축관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今(금)以(이)吉(길)辰(진)遷(천)柩(구)敎(감)告(고) 처제이하 云(운)茲(자)告(고)

글뜻 이제 좋은 날에 천구하겠아웁기에 감히 고합니다.

고하기를 다하고 일어나면 주인이하 모두곡을 하고 재배한다.

10.發靱(발인)

조조축을 읽은 다음에 는 옮긴다. 집사자는 혼백을 받들어 나가야하고 그밖의 사람들은 다른 물건들을 들고 나간다. 부인들은 장막 안에서 곡한다. 이때 상두꾼들이 관을 옮기어 상여에 싣는다. 이때 상주는 곡하며 관이 제대로 실려지는가를 살펴봐야 하며 집□□자는 영좌를 관앞으로 옮긴다음 혼백을 영좌에 다 모신다.

11.발인축

담구이(役夫(역부)) 상여를 마당에 들여 놓아 영구를 실어려 하면 집사는 영구에 있는 대청에 조건드린 상을 거두고 복을 행해 꿇어앉아

今(금)遷(천)柩(구)就(취)擧(거)敢(감)告(고) 처제이하는
 茲(자)告(고)라한다.
 글 뜻 이제 영구를 옮겨 상여에 실어 옴기로 감히 고하나이다.

12. 遣奠(견전)

영구를 상여에 옮기고 혼백을 영좌에 모셨으면 제상에 제수를 차린다. 제수는 조전때와 같고 축관이 향을 피우고 술을 따라 올리고 무릎을 꿇어 고사를 읽는다. 익고나면 모두 곡하고 재배한다. 술은 단잔이다. 견전례는 근래의 영결식과 같은 의식이다.
 영구가 떠나면 방상이 앞에서 길을 인도해 간다. 銘旌(명정) 功布(공포) 만장, 腰輿(요여) 요여배행 영구, 영구시종 상인 복인 조객의 순서로 출발한다.
 그리고 요여배행은 복인이 아닌 친척이 배행하는 것이 보통인데 배행하는 경우에 是는 건과 행전을 벗고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영구의 시종은 조카나 사위들이 하는 것이 예법으로 되어 있다.

※견전축

영이가가 왕즉유택 재진견례 영결 종친

해설 ; 상여를 메게 되었으니 다음은 곧 무덤에 이를 것입니다. 보내는 예를 배푸오니 영원토록 이별하심을 아뢰옵니다.

13. 下官(하관)과 成墳(성분)

천광 과 회격 이 끝나면 바로 하관을 해야 하는데 상주 이하 본인들은 한차례 곡을 한다. 하관이 되었으면 구의 와 명정을 관 한복판에 덮는다. 그리고 상주는 주루마기나 옷자락에 깨끗한 흙을 담아 관의 상하 좌우로 취토 튀토 취토, 하고 세 번 외치면서 흙을 넣는다. 흙을 한자쯤 채우고서 다진다. 다음에는 지석을 묻고 성분한다. 이때 이 성분이 될 무렵묘 원편에 설전(設奠)하여 산신축(평토후 사토지지신축)을 읽고 산신제를 지낸다. 그리고 성분이 끝나면 묘앞영악(靈輓)에서 평토제를 지낸다. 이때 제수를 진설하고 잡사자가 분향 헌작하고 축관이 독축을 하면 상주이하 모두 곡하며 재배한다.

14. 壙中(광중)

위와 같이 산신제를 지낸 것을 참파제 라고도 하여 참파제가 끝나면 삽과괘이로 땅을 헐어 광중을 낸다.
 관중을 회다짐으로 하여 굳지 않다 하관하기에 곤란함을 고려하여 장례전날에 광중릴을 하게 되니 자연히 번잡하고 노력이 많이 소요 되므로 회다짐을 하되 방식을 바꾸어 당릴에 하니 광중의 깊이와 넓이를 회다짐할 정도로 넓고 깊게 하여 바닥에만 석회와 모래와 황토를 섞어서 다짐을 하되 물기가 적으면 물이 맞도록 고루 뿌리면서 잘 섞어서 다짐을 하여 평평하게 고루어 두고 하관하기를 기다려 하관한 뒤에 석회 모래 황토를 바닥에와 같이 섞어서 관의 상하 좌우에 넣어서 잘 다져 하관의식이 끝나면 관 위에도 사, 오치 정도로 석회다짐을한다. 석회다짐 외에 석관이라 하여 석재로 껍을 만들어 쓰는 이도 많이 있으나 대다수는 회다짐도 석관도 아닌 광중만 파서 흙으로 다져 성분하는이가 많다.

※산신축

유세채(간지) -월(천지)삭-일(간지) 유학□감소고우 코지지긴금위학생(관직) 파평윤공(유인밀양박씨)지 , ㄷ자유택 신기보우 비무후한 근이 청작 보연 더천간 신상향

해설 ;토지 신이시여 이제□의묘를 마련하니 신께서 도우셔서 뒤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라옵고 맑은 술고 포해로서 삼가 올리오니 흠향하소서

※평토축

부상일 경우(부친상일 경우)

유세차(간지)월(간지)삭()일 孤(고)저 (1)---감소고우 (2)

현고학생(관직)부군 형귀 돈□(석)신(훈)반실당신주미성 복수존영위구속금시친시의

해설; 고자*-는 삼가 아버님께 고하나이다, 형체는 무덤으로 도라□□고 혼을 집으로 도아가 옵니다 신주를 만들지 않아/ㅅ아오니 옆드려
아뢰옵는바 존령께서는 옛속백에 따라 이곳에 의지 하옵고서

父喪(부상) 母喪(모상) 妻喪(처상) 자상 子婦(자부)상 孫婦(손부)상 承重喪(승중상) 1 孤子(고자) 哀子(애자) 夫(부)() 父(부) 舅(구) 大(대)
舅(구) 孤(고)孫(손) 2 감소고우 감소고우 감고우 고우 고우 고우 감소고우 3 현고학생부군 허비유인 망실유인 만자,(秀士(수사) 망손부유인 현고학
생부군 4 복유존령 복유존령 유령 유령 유령 惟(유)靈(령) 伏(복)惟(유)존령 5 신주가 있을 경우 신주개성 복유존령 숭(사)구종신

5

15.反哭(반곡) =返魂(반혼)

집에 도착해서는 축관이 혼백을 모셔다가 영좌에 놓는다. 그리고 상주이하 영좌 앞에 곡한다. 이때 조상 온 사람이 있으면 조문을 받는다. 대
공이하의 복인은 자기집으로 도아가도 된다.

16. 虞祭(우제)

초우는 장사날. 제우는 초우뒤의 유일(柔日(유일; 십간의을 정 기 신 해(亥)의날) 삼우는 재우를 지내고난 다음의 剛日(강일; 십간의 신 병
술 경 임의날)을 골라 아침에 지낸다. 따라서 재우는 2일 또는 3일 만에 삼우는 3일 또는4일만에 지내게 된다, 우제절차는 기제와같다.

※초우축

유세차 (간지) 월(간지) 일(간지) 고자 감소고우

현고학생부군 일 월 부거 암거□□□초우 t d 여야처 애모부령군이 청작 서첩 애편 십사

해설 ;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언 초우가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슬피 사모 하여 편할 수가 없어 옵니다. 삼가 맑은 술과 음식을 올리오니 흠향
하소서.

17.조석전과 상깃

1.졸곡 ; 삼우제를 지내고 난뒤에 지내는 제사로 서 사람이 죽은지 석달만의 정일이나 해일에 지낸다 일부터는 슬퍼도 곡하지 않는다.

2.소상 ; 초상을 치른지 만일년이회는 제사 연복=빨아서 다듬어 입는옷)을 입게 되므로 남자는 수질을 벗고 여자는 요질을 벗는다. 수질이란
상주가 상복을 입을 때 머리에 짚과 삼으로 만든 테를 드르노 여자는 허리에 짚과 삼을 섞어서 만든 띠를 두르는 것을 말한다

3.大祥(대상) 사망후 만2년만에 지내는 제사. 즉 소상후 1년 만에 지낸다. 신주를 사당에 모시고 신주가 아니면 혼백을 묘역에 묻는다. 이로써
3년상을 모두벗는것이며 상복과 상장은 태워 버리거나 남에게 주기도 한다.

4.□祭(부제) 부제는 신주를 그 조상결에 모실 때 지내는 제사이다.

5. □祭(담제) ; 대상을 지낸후 석달만에 날을 가려서 (정이 또는해일)지내는 제사 3년상을 무사히마치므로 자손된이로서 마음이 담담하고 편
안하다는 뜻이다.

6.吉祭(길제) ; 담제사를 지내고난 다음날 (정일 이나 해일에 지내는제사, 즉 이 길제는 상기를 다마치고 해상이 된다는 뜻이며 5대조고는 기제사를 끝내고 시제로 옮겨지는 절차의식이다.

7.상례해설

이상 열거한 29개 항목은 초사이 난후부터 3년상이 끝날때까지 의 주요 의식이다.

◎五福(오복)

□麻(시마) 3월 참犧(최)3년

소공(小功(소공)5월 제최3년

大功(대공) 9월

18.참최3년복

참최 오복의하나 굶은베로 짓되 아랫단을 꿰매지않은 상복의 외간상에 있음 아버지 양가아버지 여자 시집가지 않은자와 시집가서 외온자 그의 아버지를 위해 부친이 그의 맏아들을 위해 양자 아들을 위해 맏손자가 그의 부친이 사망하고 조부 및 증조와 고조부를 위해 승중복 양가 조부를 승중한복, 아내가 그의가장의 위해,첩이 그의 가장을 위해, 며느리가 그의 시부를 위해, 첩이 남편의 부친을 위해, 아버지와 승중 시할 아버지(시어머니 계시면 그렇지않다.)의복.

19제최3년복

부친이 돌아간뒤에 그모를 위해 출가전딸과 출가 하였다가 되온 딸도 같다. 계모(부친의제취한처) 자모(서자 어미없이 아비명으로 다른첩이 나를 기른어미) , 양가모친 첩의 아들이 적모를 위해 맏손자가 부친사망후 조무 미치증조모 고조모를 위해, 남천의 계모를 위해, 시부가 도라 갔으면 면느리가 시모의복, 가장이 승중하면 처도 따라복을 입는다.(시모가 돌아간뒤에) 양부모(3세전에 거두어기른 부모) 친부가 사망한 자는 강복한다. 어미가 맏자식을 위해, 계모가 큰아들을 위해, 첩이 남편의 장자를 위해.

20.제최장기(杖菴)

부친있고 모친이 돌아가면 그모친을 위해 1년복을 입어도 심상으로 3년을 마친다. 맏손자가 부친이 사망하고 조부가 있어도 조모를 위한복, 가모 (家(가)母(모)) 재가한 모를 위하여,

21.제최 5월

증조부모 (여자는 출가해도 강복이없다.)

22.제최 3월

고조부모 (여자는 출가해도 강복이 없다)

23.대공9월

종형제 자매 , 지차자부, 지차 손자손녀(장손이라도 아비있으면 지차와같다) . 시조부모 시백숙부모 출계자부가 생가시부모를 위해 어미는 같고 아비 다른 형제 자매 . 시가질부 시집간 고모와 자매 시집간 딸이 친가 백숙부모와 형제 자매 및 형제의 아들 위해.

24.소공 5월

종조부보 종숙부노 왕고모 종고모 종손 종질 재종형제 외조부모 외삼촌 생질 이모 시고모 시누이 시가종손 시가 종질 형수 제수 제사부(만동서는제부지차동서는사부) 시숙 시동생 여자친정 질부를 위해 (여자는 출가해도 강복이 없다.) 만손자와 증손 현손이 나의 후가를 위해, 출계한 자가 시집간 자매를 위해, 서자가 적모의부모형제 자매를 위해 보가 출처를 당했으면 계모의 부모 형제 자매를 위해. 나를 젖 먹여 키워준 서모를 위해, 여자가 자매의 아들을 위해,.

25.시마3월

서자부친의 후가 된자가 그의 소생모를 위해, 종증조부모 재종조부모 재종숙부모 증고모 종왕고모 재종고모 증손 현손 종증손 재종손 재종질 삼종형제자매 외손자와 손녀 장인 장모 종손부 종질부 사위 유모(젖먹여 키운어미) 서모 (부의소실)외숙모 이종형제자매 고종형제자매 외종형제자매 종형수 종제수 종시숙 종시동생 시종조부모 시종숙부모 시종조고조부모 시알고모 시종고모 시종손부 시종증손 시재종질 종동서 시 외조부모 외손부 시종질부 생질부 시외삼촌 시이모 이질부 조시누이 서손부 자식있는소실.

26. 오복의의심점

1.참최3년

- 1) 부친과 조부가 초상이 한날에 같이되어도 부가 만일 먼저 돌아갔으면 조부의 승중을 입어야한다.
- 2) 만손자로 승중한 자의 처는 시어미가 사망한 후라야 시조부의 복을 3년으로 입는다.
- 3)증조가 있어도 조부가 돌아가면 증증손은 참최3년으로 입는다.
- 4)서자가 장손으로 승중하였을 시는 조부 복을3년으로 입는다.
- 5)만손자가 죽고 후가 없으면 다음 손자가 조부 소중을 계승한다.
- 6)부친을 계승한 자는 만자식을 위하여3년을 입는다.

27.제최3년

- 1)부친돌아가시고 조부가 계셔도 모친을 위하여 3년을 입는다.
- 2)부모의 초상이 함께되어 비록한날 안에 있어도 부친이 먼저 돌아가셨으면 모친의복을 3년입는다.
- 3)적모가 서자를 미워하지 않으므로 서자가 부친 사후에는 적모를 위하여 3년복을 입는다.
- 4) 조부 돌아가실 때 부친이 계셔 이미 조부 복을 기년으로 입었으나 이제 부친이 사망하고 조모가 돌아가시면 역시 조모를 위해 3년으로 입는다.
- 5) 증조모 고조모 및 조모가 같이 계시면 낮은 자(조모)가 먼저 사망 하여도 또한 승중으로 3년입는다.

28.제최장기

모친상의 연제를 지내지못하로 부친이 돌아가면 모친상을 펴서 3년으로 입으며 이미 연제를 지내고 부가 돌아가시므로 인하여 그대로 입고 심상으로 3년을 마친다.

29.부장기

- 1)조상중에 부가 돌아가면 손자는 승중을 하지 못하고 조부의 본복인 기년으로 입고 복을 벗으면 심상으로 3년을 마치고 무릇 상사는 섭행하여 주제한다.
- 2) 적손이 승중으로 상중에 있다가 죽어도 차손을 조부의 본 복기년을 입으며 섭행하여 주제한다.

3) 출계한 아들을 위해 본 복으로 기년 한다.

30. 대공 9월

- 1) 딸며느리도 시부의 후가 되지 못한 자는 지차 며느리와 같다.
- 2) 출계한 자부는 지차며느리와 같다.
- 3) 여자가 출가한 자는 고모와 자매를 위해 대공복이다.

31. 소공 5월

- 1) 적모가 비록 3.4명 있어도 다만 한 어미의 겨례에만 복을 입는다.
- 2) 적모의 후가 된 자라도 적모 사망하면 적모의 겨례의복은 없다.

32. 시마 3월

- 1) 서자 부친의 후된자의 처는가장의 소생모를 위해 시마복이다.

33. 성복의 의심점

- 1) 부모의 상에 부음을 들은 후 때늦게 선복한 자는 달을 계산해 복을 입으며 달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 2) 주상자가 병에 누어 앓더라도 역시 성복을 당하면 비록 회복이라도 신상에 더해여야 한다.
- 3) 주상자가 외처에 있어 돌아오지 못하면 집에 있는 자가 예에 의존해 성복한다.
- 4) 5세로 조상이 같은 자는 袒免(단면)을 한다. 단면은 두루마기의 오른쪽 소매를 벗고 사각건을 쓴다.
- 5) 자손의 복은 흰 것과 검은 무(武)에 심의를 입는다.

◎상복(觴(상)服(복))

출생하여 8세 사이에 죽은 것을 觴(상)이라하여 복을 입는다.

8세에서 10세 사이에 죽은 것을 하상 이라하고 10세에서 15세 사이로 죽는 것을 중상 이라하고 18세에서 19세 사이에 죽는 것을 장상 이라한다.

8세 미만에서 죽는 것은 복이 없는 것이니 그저 곡만하며 3세 미만에 죽으면 곡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남녀가 혼례를 치렀거나 관례나 계례를 치렀으면 19세 미만에 죽어도 상으로 보지 않는다. 골육의 정은 어른이나 어린이가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상이란 복이 생긴 것이나 지금 세상에서는 상의 복을 입는 이가 별로 없으나 이것은 예의 가르침에 본명치 못함이다.

35. 심상(心(심)喪(상))

심상이란 것은 몸에 상복을 입지 않고 마음으로 슬프히며 복을 입는다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스승에게 해당하는 것이며 마음으로 3년을 채운다는 말이다.

아버지가 없으면 3년복을 입는 어머니의 복을 아버지가 있을 때 그 남은 복을 심상으로 채우며 적모와 계모 양모 자모에게도 부친에 계시므로서 복이 적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모두 같다.

36. 승중

장손으로 아버지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조상의 제사를 받들

37. 상문할때빈소(망인)에대한예절

- 1)상주는 않지만 망인이 일면식도 없으면 빈소에는 (망인)절하지않고 상주만 보고 망인은 알고 상주와 일면식이 없으면 망인 영정에만 곡매하고 상주는 보지 않느다라고 되어 있지만 요즘은 그것을 다 찾을 수있겠나싶다.
- 2) 친구 부인이 망인이 되었을 때 내외법에 따라 친구인 남자는 영정에 절하지않고 상주만 본다.(이때 비소앞 가리게 가있으면 가린다.)
- 3)친동생이 망인이 되었을 때 형과 형수는 곡배한다.(처음만한다)
- 4)제수가 망인이 되었을 때 곡만하고 묵념으로 대신한다.
- 5)망인이 상문객보다 촌수가 질부이고 연령차이가 적으면 곡만하고 절하지 않는다. 남자질항에는 곡배한다.
- 6)상문을 갔을 때 상주가 곡을 하고 있으면 상문객도 곡할자리는 곡을 하고 상주가 곡을 하지 않고있으면 상문객도 곡을 하지않고 상주가 곡을 하고 있더라도 문상객이 곡하기 싫으면 상주보고 지곡하라고(곡을 하지마라고)청을 한다.

38.問喪(문상)

부모상을 당한 부음을 듣는다는 뜻이며 또 분상 이라고 도하여 부모상을 듣고 급히 달려 간다는 뜻이다.

객지에 있어서 부모상을 들으면 즉시 곡을하며 부고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대하여 연고를 묻은 뒤에 통곡하며 흰옷으로 갈아입고 버선을 벗으며 머리 풀어 수건쓰고 길을 떠나 집에 당도하면 시신앞에서 곡을하며 혹 성복한 후에 도달하였으면 상복으로 갈아 입는다.

부음을 듣고도 갈 수 없는 처지라면 영위를 만들어서 성복을 하나 제물은 올리지 않는다. 그리고 매달 초하루에 영위를 만들어 곡을 한다.

복입은 달수가 차면 다음달 초하루에 영위를 만들어 곡을하며 복을 벗는다 ;

만일집에 도착할 때 이미 장례르 ㄹ치른 뒷면먼저 묘소에 가서 통곡하고 절을 하는데 집에서 하는것과 같이 한다. 아직 성복을 못했으면 묘송앞에서 상복으로 갈아입고 집에 와서 영좌앞에 곡을 하고 절을 한다.

39.영좌(靈座(영좌))

소에 들어가지않고 역시 상주에게만 인사한다. 그러나 내간상이라도 조모나 어머니 로서 고령인때는 내외법은 참작하지 않아도 된다. 또 상주가 먼저 곡을 하다가도 조객이 곡을 하지않으면 곡을 그치고 조객이 곡을 하지않으면 역시 상주도 곡을 않는다(지금은 다양한 종교 관계임)

- 1) 곡하는요령; 상주는 애고(哀苦(애고)) .. . 하고 조객 은 獻歎(허희)獻歎(허희) 허희.. . 하면서 곡하는데 보통 어이 어이 히야 소리내어 곡한다.

※ 부모상과 承重喪(승중상)

조객 ; 喪事(상사)에 말씀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상주 ; 망극하오이다.

※ 妻喪(처상)

조객 ; 상주께 인사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상주 ; 신세가 한탄스럽습니다.

※ 夫(부)喪(상)

조객 ; 상사에 여쭙 말씀이 없습니다.

상주 ; 신세가 한탄스럽습니다.

** 子(자)상

조객 ; 얼마나 상심이 됩니까?

상주 ; 인사받기 부끄럽습니다.. 이지경을 당하니 비참할 따름입니다.

형제상 ; 조객 ; 白氏(백씨) 또는 仲(중) 季(계)씨)상을 당하여 얼마나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상주 ; 올릴말씀이 없습니다. 비감하기 한이없습니다.

조부모 숙부모상 ; 조객;복제말씀 무어라 여쭙오리까 . 상주 ; 무어라 여쭙말씀없습니다.

소대상위문 조객; 소상을 당하시니 얼마나 망극하십니까? 상주 ; 망극할따름입니다.

이상은 일례에 불과하므로 이를 숙동하여 충분히 이해하면 각자 형편에 따라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다.

40. 賻儀金(부의금)

상가에 부의금을 보낼때는 단자를 써서 봉투에 넣는다 만일 단자를 쓰지않을때는 봉투 표면에 금액 또는 물목을 쓴다 또 조물은 물품을 따로 싸고 단자만 봉투에 넣어서 보낸다.

부의금 문구

초상때 ; 謹弔(근조). 賻儀(부의). 弔儀(의) (조의) 香燭(향촉)대

소.대상때 ; 香奠(향전) 奠儀(전의) 菲(비)儀(의). 菲(비)品(품).

기타사항 ; 앞의 경조사부조 항목 참조할 것.

41. 代(대) 世(세) 호칭 예

상대 **하세

부1대 조고2대 *본인1세 부2세

*재례사 *부모=효자

*조고=효손

*증조=효증손

*고조=효현손

*三獻(삼헌) = 初獻(초헌)., 亞獻(아헌) . 終獻(종헌)

(大(대)祭(제)誓(서)械(계)文(문))

有(유)誠(성)有(유)物(물)= 무릇 정성이 있으면 존재가 있게되나 정성이 없으면 존재 자체가 없게 되는 것이다..

無(무)誠(성)無(무)物(물) = 마음을 바르게 하고 깨끗한 복장을 하고 성대하고 단정한 자세로 제사에 임하면 신이 와서 계신 듯이 될 것이다.
경건하게 오로지 한마음 한가지에만 집중할 것이니 한마음 한가지란 바로 정성이므로 정성을 다한다면 반드시 신과 격감할 수 있으니 각자
열과 성을 다하여 근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장 제례

1.제사의참뜻

제사란 선조가 돌아가신 날을 맞이하여 추모의 정을 잊지못하고 또 생시에 봉양이 미진했던 불효의 마음을 사죄하는 추도의 의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의례가 그리 복잡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은 현대인들이 그만큼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이 희박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제사라는 형식이 필요하며, 또 음식(제수)을 마련하는가 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유교의 제사는 살아생전에 효를 다하지 못하였으니 돌아가신 후에라도 다한다. 라고 했고 특히 우리의 제사는 내뭍이 다하도록 섬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명심보감에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내자식이 또한 나에게 효도 할것이니 내가 이미 효도를 못했다면 내자식이 어찌 나에게 효도를 하겠는가 . 이라고했다. 즉 효는 궁극적으로 자기를 위하는 것이다.

1)제사는 효의 연장이다.

부모는 자식을 낳아주고 키워주고 죽을때는 재산까지 물려준다, 그래서 그 부모로부터 싫든좋든 운명적인 것으로 은혜를 입게 되고 자식은 그은혜에 대한 빚을 지고 있다. 이와같은 부채가 없더라도 길러준 부모에 대한사랑이 있게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은 일시적인 것이어서 잊어버리기가 쉽다. 그래서 사회적 도덕과윤리의 바탕 위에서 효 라는 기본 상식이 생긴 것이다. 효는 자식이 부모에게 행하여야하는 의무이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것인가. 첫째는 부모가 자기를 낳아준 것 에 대한 보답으로 자기도 자식을 낳아서 대를 끊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큰 불효이다. 둘째로 자식은 부모를 봉양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부모가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것에 대한 값음이다.

세째 살아계실 때 뿐아니라 죽은 후에도 부모를 모실 의무가 있다. 그것은 곧 제사이다. 이것은 단순한 조상숭배 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사회적 의무이고 도덕이다.

유교적 이념에따라 조상은 신이 아니고 살아있는 부모의 연장이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제사는 효도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조상숭배는 세대간 생기는 갈등을 해결해주는 하나의 방법이다. 즉 부모는 자식에게 갚은 것을 물려주고 죽음의 세계로 가야하는 안타까움. 자식은 부모 봉양의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마음의 부담이 있다. 그러를 조상과 자손은 제사 라는 의식을 통해서 연결된다. 그뿐아니라 제사는 자손들 상호간에 결속을 강화하는데 에 대단한 기능을 갖고 있다. 즉 제사 라는 의례를 통해서 종적인 조상과 자손, 횡적인 자손과 자손을 종 횡 으로 연결하고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제사에 자손드리 모이면 먹을 것이 있어야한다.이를 위해서 제수라는 명목을 빌어 조상을 대접하고 난후 음복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신앙이 아니다.

조상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효의 대상일뿐이다. 따라서 제사를 산사람 모시듯 하는 것이다. 죽은사람을 숭배한다는 점에서 넓은 뜻의 종교 범위에 들기는 하지만 관련적으로는 사자에 대한 추모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과연 제사를 추모로 볼것인가 아니면 신앙의례로 볼것인가 라는 점이 문제가된다. 이것은 곧 제사를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기독교 가 이땅에 전래되면서 항상 부딪치는 문제가 바로 이 조상숭배 문제이다.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조상숭배 는 우상숭배라는 것이다.

중국에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교회측은 조상숭배를 거부해서는 선교가 어렵겠다고 생각하고 선교의 방법으로 조상숭배를 인정하는 영합주의정책을 폈다.그러나 1742년 로마교황청이 조상숭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므로써 제사와 기독교는 정면대립 하게 되었다. 이러한 방침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마찰을 빚게 되었다. 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수있다.

첫째 유교나 기독교 모두 부모 생전에 효도하는대는 일치한다.그러나 사후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르다. 즉 유교에서는 부모가 죽은 후에도생전과 마찬가지로 음식을 대접하는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은후에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낸다는것이고 기독교는 죽은 후에도 영혼을 살아있다라는 (죽음의부정)견해이고 기독교에서는 죽음 자체를 받아들이는 (죽음의 긍정)사생관의 차이라 하겠다. 이것은 기독교가 단순히 제사음식에 대한 부정만이 아니고 죽은자에 대한 제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제사 의례를 우상숭배하지마라 라는 십계명에 따른 것이다.

둘째 사후 영혼의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모두 같다. 그러나 유교에서는 사자 라할지라도 산사람처럼 욕구를 가질뿐아니라 사람이 거쳐하는 가까운곳(사당이나 정침)에 신주로 모셔 지면서 제일 명절등에 제사를 받는 존재인데 반해 기독교는 사자가 어떤물체에 憑依(빙의)하는일 없이 오직 하늘이나 땅밑으로 멀리 가버리는 존재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죽어서 신이 될수있다는 기독교 사상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 모두가 신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 오직 하느님 만이 신이라고 믿는 유일신 사상이다. 이점에서 두종교는 극단 대립 된다. 유교에서는 생과사를 하나의 차원에서 연속적인 것으로 보며 기독교에서는 생과사를 불연속적인 상이한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생사관에서 유교는 일원적사상이고 기독교는 이원적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유교의 제사 조직은 바로 친족 조직이며 제사사상은 인간들 제집단의 유리하고 할수 있다 그러므로 유교는 윤리중심이지만 기독교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종교신앙이다.

이런점에서 유교와기독교는 윤리대 신앙, 세속대 신성의 대립이라 할수 있다. 그러므로 유교의 입장에서 기독교는 부효라볼 수 있고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유교는 우상숭배 로 미신이라 볼수 있었던 것이다.

3.) 한 일 두나라의 조상 숭배

한 일 두나라의 조상숭배는 어떻게 다른가? 가장 드드러진 차이점은 한국이 유교의 영향이 크다 즉 한국(유교)에서는 사대봉사라 하지만 보통 자신의 대를 포함하면 증조부모까지 기제사를 모시고 일본에서는 사망후 33주까지 제사를 지낸다. 유교에서 말하는 사대봉사는 보통 20년을 한세대로 본다면 10세의 어린이가 30세의부모 50세의 조부모 70세의 증조부모까지 기억할수 있는최장기간을 제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교의 33주기는 예컨대 30대의 사람이 33년간 부모제사를 지내게 되면 머지않아 자기가 죽어 제사를 받을 순서에 이르게 된다. 즉 유교에서는 자신이 기억할수있는 최고 세대까지 소급하여 지내지만 불교에서는 자기가 살아있는생전에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다.

4.)교황청의 해석

1742년 (영조18년) 중국의 전례 문제에 관한 로마교황청의 명령을 엄학 지키면서 우리나라 천주교에서도 제사부정의 운동이 일게 되었다. 그러나 1939년12월18일 로마교황 피우스 12세가 교서를 통해서 유교의 조상숭배는 하나의 시민적 의식일뿐 종교적 의식은 아니다. 라고 선언하면서부터 양자간의 마찰은 끝났다. 그리고 1965년부터 열렸던 제2차바치칸 공회에서도 전통적인 의식을 용납하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아직도 조상숭배를 부정하고 있다.그래서 유교와 개신교(기독교)의 마찰과 대립은 현재까지 계속 되고 있는상태다.

2.位牌(위패)

1) 신주

신주는 밤나무로 만든다. 몸체는 두께 3센치 너비 6센치 높이 25센치 정도 한쪽을 둥글게 깎고 흰색분을 개어 칠한다.부속품으로 는 받침(□(부) 덩개(輶(도) 깔개(藉(자) 함받침(獨坐(독좌) 함덮개(독蓋(개) 함방석(독좌석) □(독)座(좌)席(석) 등이있다.

신주하나에 한분의 조상을 신주 북판에 붓글씨로 내려쓰고 외쪽아래에 봉사자 이름을 쓴다. 한번쓰면 가묘에 오래모시게된다.家廟(가묘 *세로로 써야한다.

顯(현)考(고)書(서)記(기)官(관)郡(군)守(수)府(부)君(군) 神(신)位(위)

1 2 5 3 4

孝子(효자) (0 0) 封祀(봉사)

*註(주) 1.의고 는 돌아가신 아버지 의 뜻 어머니는 妣(비) 조부모는 祖(조)考(고) 祖(조)妣(비), 아내는 亡室(망실) , 또는 故(고)室(실). 남편은 顯(현)辭(벽). 아들은 亡(망)子(자) , 아우는 망제 亡(망)弟(제) 라고 쓴다.

2.는직위

3.은직책 이다.사실대로쓰되 없으면 처사 또는 학생 이라 쓴다. 여자의 경우에는 남편이 벼슬을 했을 때 ()부인 이라 쓰고 남편이 벼슬이 없으면 孀人(유인)이라 쓴다. 여자 자신에 직급이 있으면 사실대로 쓴다. 조선시대 여인 품계로는

정경부인 (정 종 1품) 정부인(정/ 종2품)

숙부인 (정3품당상) 숙인(정3품당하, 종3품)

영인 (정.종4품) 恭(공)인(정.종 5품)

宣(선)인(정.종6품) 安(안)인(정.종7품)

端(단)인(정.종8품) 孺(유)인(정.종9품)

4.부군 은 죽은사람을 높이는뜻, 그러나 그것은 남자의경우이고 여자는 본관과성을 쓴다. 즉 안동김씨 밀양박씨, 등

5.의 孝(효)는 맞이라는뜻이다. 맞아들은 효자 말손자는 효손 등으로 쓰고 작은 아들 손자 이면 그저 子(자) 孫(손) 이라 쓴다. 남편은 夫(부)라쓴다.

6. 의 봉사 는 윗 어른의경우이고 아내의 경우는 行祀(행사)라쓴다.

지방쓰는 예(例(예)서식

* 顯(현)나타날 考(고)상고할 아비, 孀(시)남편집 辟(벽)임금 之(지)갈지 靈(령)신령 하늘 구름의신

지방을 쓸때는 위의 서식과같이 한 장에 남자와 여자를 함께쓴다. 임시로 만드는 위패 이기 때문에 신주 라 하지 않고 神位(신위)라 쓴다.

주 ; 제주의 비속은 신위라 쓰지않고 之(지)靈(령)이라쓴다. 예를 들면 망제 ()()지령 , 망자수재(토) () ()치령 등이다.

3.제사의종류

제사에는 상종의 노제 , 소상, 대상, 禪(선)祭(제) .부제,길제 등 외에 기제 節(절)사, 시제 등이있다.

4. 忌(기)祭(제)祀(사)

4대(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 봉사와 친상 3년 제도는 실상 중국의 사대부 예절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서는 문공가례의 보급에 따라1550년 (중종때)이후부터 서민에 까지 퍼져 500년간이나 계속되고 있다.이기제사는 4대봉사로 년8회가 원칙이지만 조상중에 산처하여 제취한 비위가 있으면 1-2회늘어 10여회 이상 제사를 모시는 경우도 있다.

제사 모시는 일시는 사망한날 새벽(자정)에 지내는 것으로 예서에 쓰여있으나 그날로 접어드는 밤중(0시에서1시) 에 지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가정의례준칙에는 기제사는 별세한날 일몰후 적당한 시간에 지낸다. 로 장해놓고 있다. 그러니까 5월12일 아침6시에 돌아가신 분의 기제는 그날 오후 8시경(일몰후)에 지낸다는 뜻이다.

5.절사 다례(절祀(사)=茶禮(다례))`

절사를 다례라고도 한다.월례는 음력으로 매월 초하루와 보름 또는 생일날등 날에 간단하게 지내는 약식 제사였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거의 없어지고 설 (음력1월1일)추석(음8월15일) 한식(동지후103일이되는날 즉 양력4월5일이나 (6일이된다)에만 지내고 있다.그중에서도 우리나라 2대명절엔 서과 추석 차례는 가장 보편화 되었고 한식 차례는 일부 가정에서 묘제형식으로 지내고 있다. 추석에 햇곡이 나지않을 경우에는 추석날 대신 음력 9월9이레 차례를 지내는수도 있다.

6.기제와다례의차이점 (忌祭 茶禮 節祀)

- 1)기제는 돌아가신 그 앞날에 지내고 차례는 명절에 지낸다.
- 2)기제는 밤에지내고 차례는 낮에 지낸다.
- 3)기제는 그날돌아가신 조상과 그배우자만 지내고 차례는 자기가 기제사를 받드는 모든조상을 지낸다
- 4)기제는 장자손의집에서 지내고 차례는 사당이나 묘지에서 지낸다.
- 5)기제는 메(밥)와갱(국)을 차리지만 차례는 명절음식(설날;떡국 추석;송편 한식;화전,쫄떡)을 올린다. 또 기제에는 해(해=식혜건디기)를 올리지만 차례에는 해(해=생선젓.조기)를 올린다.
- 6)기제에는 술을 3번올리지만(三(삼)獻(헌)) 차례는 한번만올린다.(單獻(단헌))
- 7)기제는 잔반을 내려 술을 따라올리지만 차례는 주전자를 들고 제 상위의 잔반에 직접 술을 따른다.
- 8)기제는 술을 올릴때마다 적(炙(적))을 올리고 내리고 하지만 차례는 진찬때 삼적(三炙)을 함께 올린다.

9)기제는 첨작(添酌(첨작)을 하지만 차례는 하지않는다.

10.) 기제는 합문과 계문을 하지만 차례는 하지않는다.

11) 기제는 송농을 올리지만 차례는 하지않는다.

12) 기제는 하루에 두 번(부모와조부)지내는 경우가 있지만 차례는 4대까지의 모든 조상을 내외분마다 한꺼번에 지낸다.그러나 제상을 따로 차리되 향안 주가 소탁 등은 하나만 있어도 된다.

13) 기제는 반드시 축문을 읽지만 차례 는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7. 시제(時祭(시제))

時祀(시사)또는 時享(시향) 이라고도 하는데 조상의 묘소에서 지내는제사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묘사라고 도 한다. 음력 10월15일을 전후하여 지낸다.그이상의 원대 조상들은 함께 묘제로 지낸다.시제에는 여러파로 갈린 각파 친족들이 한묘앞에 모여 참례한다.그러나 상중에 있는사람이나 부녀자 들은 참여하지 않는다. 이밖에 薦新(천신)이라해서 철 따라 새로나온 곡식으로 만든 음식과 과일 등을 사당에 올렸다. 그러나 사당이 거의 없어진 오늘날은 대개의 가정에서 집안의 윗자리에 새과일 새음식을 차려놓는 풍속으로 변했다.

8.제례기구(祭禮(제례)器具(기구))

병풍 위패함(지방함) 交椅(교의) ==위패함을 모시는 의자) 제상 향안(香爐(향로) 향합을 올려놓는상, 酒(주)架(가)=술병 주전자 퇴주기를 올려놓는상, 小卓(탁)=위패 또는 지방을 교의에 모시기 전에 덥 시키는상) 대상(대상=제상에 올리기전에 제사음식을 대기시키는 상)

소반(小盤(소반)=음식을 운반하는 상) 祝板(축판=축만을 붙이거나 올려놓고읽는판자) 祭席(제석=제사장소에 까는 초석) 香爐(향로=향을 피우는 그릇) 香龕(향합=향을 담아놓는 그릇) 茅沙器(모사기=깨끗한모래에 띠를 한줄묶어세운 그릇) 촛대 祭器(제기)일체

9.표준제수(標準(표준)祭需(제수))

제수란 제사에 쓰이는 금품을 말하는것이고 조리된 음식은 제수라한다. 같은 음식이지만 뜻은 약간다르다.

매 ; 밥; 그릇에 수북이 담고 뚜껑을 덮는다.

갱;국 소고기와 무를 네모로 납작하게 썰어끓인국

면;국수; 삶아서 건디기만 그릇에 담아 뚜껑을 덮는다

편 ;떡; 대게 시루떡을 해서 정사각형접시에 괴고 위에는 찹살가루고 갖가지 모양을 빚어 기 름에 튀겨 꿀이나 조청을 바른 웃기를 얹는다.

편청 ; 꿀이나 조청 또는 설탕

초첩 ; 식초

전 ; 기름에 지진 부침새 대개 육전과 어전 두가지를 쓰며 여유가 있으면 육회와 어회를보 태 4가지를 쓰기도 한다.

적 ; 불에 끓거나 찐음식

어적 소적 육적 등 2-3종을 쓴다.

탕 ; 육탕 소탕 어탕 등

熟菜(숙채) ; 익힌나물 대개 배추나무(靑)도라지(白)고사리(黑) 이밖에 무나물 수주나물 콩나물 등

沈菜(침채) ; 백김치 주로 무로 담근 나박김치

淸醬(청장) ;간장

醢(혜) ;식혜건대기

脯(포) ;생선말린 것

醋醬(초장) ;간장에 식초를 타서

겨자 ;겨자 회를 쓸때만

적염 ;炙(적)鹽(염)적을 찌어먹는 소금

과일 ; 새과 와조과

醢(해) ;생선젓 묘제에 쓴다.

제주 ;청주 또는 농주 단 맥주 소주 양주 등은 쓰지않는다.

유의할점

- 1.마늘 고춧가루 양념은 쓰지 않는다.
- 2.비늘없는○ 생선과 갈치 꽁치 삼치등 끝다가 치 로 된 생선을 쓰지않는다.
- 3.과일중 복숭아는 쓰지않는다. 복숭아는 귀신을 쫓는다는 속설 때문이다.
- 4.제수를 장만할때는 몸을 깨끗이하고 기구도 정결한 것을 쓰며 침이 튀거나 머리카락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 5.매,갱, 탕, 전, 적,면, 편,과같이 따뜻하게 드셔야할 음식은 식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6.제상 에 올릴 제수는 자손이 먼저먹거나 타넘어서는 안된다.특히 어린이들이 함부로 집어먹지않도록 엄히 다스려야한다.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제상에 올릴만큼 따로 담아놓고 남는 것은 먹어도 괜찮다.
- 7.밤은 껍질을 벗기고 광일은 담기 편하게 아래 위를 돌려낸다. 과일은 꼭지부위가 위로 가게한다.8.제수는 방바닥에 놓지말고 대상에 올려놓고 대기한다.

10삼과실(三果實)을 으뜸으로 삼는뜻

제사상 제수 진설 에 과실을 먼저 차리되 棗(조)西(서)次(다음) 올(밤) 시(감) 로 진설하여야한다. 이세상 많은 과실이 있지만은 상기 삼과를 으뜸으로 진설함은 숨은 양설이 있다.

그 첫째는 정부조직에 있어 임금님 미테 삼정승 육판서 가있어 대추씨는 한강에 씨가한게로서 왕을 상징하고 밤은 한송이 안에 밤이 세 개가 들어있어 삼정승을 뜻하고 감은 한 개안에 씨가 여섯 개가 들어있어 육판서를 상징하여 중히여긴다는 설이 있고.

그 둘째 대추는 꽃이피게되면 그 꽃이 허실됨이 없이 한 꽃에 한 개의 열매가 맺고 만다고 한다 사람으로서 이세상에 태어나면 꼭 후손을 두어야 한다는 뜻이 있고 밤은 한알 땅에심으면 밤나무가 나서 수년을 커도 뿌리에는 심은밤의 껍질이 썩지않고 붙어 달려있다. 이는 조상이 후손을 돌보는 뜻이 있고 감은 아무리 좋은감이 있어도 그씨를 심으면 그나무에 고염 밖에 열지않는다. 좋은감을 얻으려면 고염나무에 좋은 감나무가지를 꺾어 접을 부쳐서 키워야 좋은감을 얻게된다. 이는 우리사람도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훌륭한선생을 만나 교육을 받아 커야 한다..상기와 같이 삼과를 어뜸으로 하는 것은 이런 뜻이 있음이라 한다.

기제사는 양위가 별세했을 경우 습(합)設(설)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진설 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격식이 있다. 별도 진설은 考(고)妣(비) 양위의 합설 경우의 제수 진설도 이다.

편의상 1.2.3.4.5.의숫자를 부쳐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열 은 매.갱. 시접. 자반. 잔반 면 , 편, 2.열은 전 , 적, 3.열은 탕 4열은포, 속채, 청장, 침채, 식혜

5열 은 생과와 조과로 되어있다.

좌반우갱;羹(갱) 왼편에 메, 오른편에 갡을 놓는다. 이것은 산사람과 반대되는 배열이다.

어동육서; 생선은 동쪽(오른편)육류는서쪽(왼편)

생동숙서; 熟(숙) 날것은 동쪽(우) 익은 것은 서쪽에 놓는다.

좌포우혜; 외쪽에 脯(포) 오른쪽에 식혜(단술)醴(혜)

동두서미; 생선은 머리가 동쪽 꼬리는 서쪽(좌)

조율이시; 과일은 대추밤감(곶감) 배....순서로한다. 배와감은 바꿔 놓는 가문도있다.제사에 삼색과일은 필수적이다.이것이 없으면 제사는 무효 이고 다시 지내야 한다. 제사에 대추 밤 감 (또는 곶감)을 쓰는 이유는 다음과같다.

※삼과실을 어뜸으로 삼는 뜻

*대추; 대추의 특징은 한나무에 헤아릴수 없을 만큼 많이 열리며 꽃 하나가 피면 반드시 열매가하나 맺고 그열매에 씨가 한 개밖에 없으며. 헛꽃은 절대없다. 즉 사람으로서 태어났으면 반드시 자식을 낳고 죽어야 한다는 뜻이다,

*밤; 다른 식물의 경우 나무를 길러낸 첫 씨앗은 땅속에서 썩어 없어져 버리지만 밤은 땅속의 씨밤이 수십년이 지나도 절대 썩지않고 생밤인 체로 그뿌리에 달려 있다. 그래서 밤은 자기와 조상의 영원한 연결을 상징한다. 자손들이 수십 수백대를 내려가도 조상은 언제나 영적으로 자기와 연결되어 함께 있다는 뜻이다. 신주를 밤나무로 깎는 이요도 바로 여기에 있다.

*감; 콩심는데 콩나고 팥심는데 팥 나는 것이 천지 이치다. 그러나 감 만으 그렇지 않다.감씨앗을 심는데는 절대 감이나지않고 고욤나무가 나 는 것이다. 그래서 3-5년쯤 지났을 때 기존의 감나무 가지를 잘라 이 고욤나무에 접을 붙쳐야 그다음부터 감이열린다. 이감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사람으로 다태어났다고 다 사람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고 배워야 비로소 사람이 된다 는 뜻이다.가르침을받고 배우는데는 생가지를 칼로 찢어 접부칠때처럼 아픔이 따른다.그아픔을 겪으며 선인의 예지를 이어받을 때 비로소 하나의 인격체로 설수 있다는 것이다.

인자의 책무 라는 글이 있어 실어 본다. 역사속의 한 점획으로서 과거와 미래를 이어가는 시공적 접점이다..

홀수와짝수(음수); 땅에 뿌리를 박은 곡식이나 채소 과일은 陰山(음산)이기 때문에 같은 줄기에서 가지수를 짝수로 한다. 즉 떡과 국수는 곡 식으로 만들었고 같은 줄에 놓기 때문에 합해서 짝수이어야 한다. 다만 메와 갡은 신위의 수대로 해야 하므로 짝 홀수를 지킬 수 없다.,그리고 과일역시 생과 든 조과든 땅에서 생산되었고 또 같은 줄에 놓기 때문에 짝수이다. 땅에 뿌리를 박지않은 육류고기나 생선고기는 天產(천 산)즉 陽(양)産(산)이므로 같은줄에서 홀수로 한다. 탕은 생선이 재료이고 같은줄에 놓기 때문에 홀수인 3-5그릇이고 또 전과 적도 모두 고 기와 생선이기 때문에 모두합해서 홀수로 놓는다. 전은 이, 사종이고 적은 삼종이므로 합치면 홀수가 된다. 이를 정리하면1.4.5열은 짝수이고 2.3열은 홀수이다.

11.參祀(참사)

1) 서립위치(序(서)立(립)位(위)置(치))

제례에서의 동서남북 방위는 신위를 북쪽에 모셔놓고 신위 앞이 남쪽이고 뒤가 북쪽이다. 또 신위를 향해 오른쪽이 東(동) 왼쪽이 西(서)가된

다.따라서 제례때 일정한 기준없이 좌우라고할때는 동서를 말하는 것이다. 북

북

여자참례자 남자참례자1)여러조모 어머니 제주 1)여러조부2)여러숙모, 고모 주부 큰아들 2)여러숙부 고모부3)여러형수 누님 큰자부 큰손자 3)여러형님 4)여러제수. 누이 큰손부 4)여러동생5)질부 5)장자보다나이많은조카 6)자부,여러질부,딸 질녀 6)장자보다나이적은조카7손부 7)큰손자보다나이많은손자8.)손녀 9)여자집사 8)큰손자보다나이적은손자 9)남자집사

신위

제 상

제 석

남 ㄷ

남

*제주 의 앞에는 아무도 설수없으나 주부 의 앞에는 자난날의 주부였던 어머니 만이 설 수 있다. 남자는 동쪽 제주 자리 옆 여자는 서쪽 주부자리 옆에 상기 도면과 같이 선다.

12. 服裝(복장)

남자는 한복정장에 예복을 입는다.만이 도포가 없으면 한복 두루마기를 반드시 입어야 한다. 부득이 한경우에는 양복도 입을수 있으나 이것도 반드시 정장을 해야한다.

여자는 옥색 한복 정장을 해야 한다. 없으면 다른 한복 정장도 가능하지만 양장은 안하는게 좋다. 이와 같이 남 여 모두 통상복을 입을 때라도 정장을 해야하고 현란한 색깔이나 악세사리는 피한다.

13. 祝文(축문)

축문은 흰 간지를 너비24센치 정도의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붓으로 내려(세로)서 쓴다.

한문 서식

유세차 (간지)()월 (간지) 삭()일(간지) 효자() () 감소고우

현고서기관청송군수 부군

현비부인문화유씨세서천역

현고부군휘일부임추감시호천망극 근이청작서수공신전현상향

14. 국문서식

이제 () ()년()월 ()일에 맏아들()는 아버님 서기관 청송군수 어른과 어머니님 부인문화유씨앞에 감히 밝혀 아뢰나이다.

세월이 바뀌어 아버님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니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생각되어 하늘과 같이 끝난데를 모르겠나이다.

삼가 맑은술과 갇은 음식을 공경을 다해 받들어 올리오니 두루 흥향하옵소서.

; 앞에 축문은 맏아들이 서기관을 청송군수였던 아버지 기재사에 문화유씨인 어머니와 함께 제사지내는 축문이다.

의 연월일(간지)은 제사대상이 돌아가신 날이며 또 제삿날 이므로 사실대로 쓴다.

2 는 봉사제주 의 이름이다. 봉사자가 아버지나 형일경우는 이름을 쓰지않고 부 형 이라 쓰지만 아내나 아들 동생일 경우엔 이름을 적는다. 특히 아내인 경우례는 성과 이름을 함께적는다.

3의 감소고우는 아내에게는 감을 빼고 고수우 아들에게는 감소를 빼고 그저 고우 라고만한다.

4.5.6.7.8.은 위패신주향에서 언급하였다.

9.10.의 본관 성씨는 사실대로 쓴다. 어머니는 자기와 성씨가 다르고 두사람 이상일수도 있으므로 본관과 성씨를 써서 구분한다.

12 는 누구의 제사인가를 밝히는 항목이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계시고 아버지의 제사라면 8.9.10.12.를 빼고 곧바로 7.11.13.을 연결하여 부군 세서천역휘일복림 이라 쓴다, 다른 조상의 경우도 같다. 세서천역은 세월이흘러 라는뜻이다. 휘릴 복림 은 돌아가신날이 다시 돌아오니 의 뜻 이아. 아내와 아랫사람의 기제사에는 망일 복지 라쓴다. 추원감시 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생각난다. 는 뜻이므로 방계친족의 기제사는 쓰지 않는다.

14.의 호천망극 은 하늘과 같이 높고 넓어 끈간대를 모르겠다는 뜻이다. 조부모 이상에는 부성영모 깊이흠모하는 이길수 없나이다. 라고 쓰고 아내에게는 부승필염 슬픈마음 이길수없나이다. 라쓴다.방제친족 기타친족 기타에는 부승감창 가슴아픔을 이길 수 없다. 이라 쓴다.

15.의 근이 는 삼가 라는 뜻이다. 아내와 아랫사람에게는 에이 라쓴다

16. 공신존헌 은 공경을 다해 받들어 올린다는 뜻이다. 아내와 아랫사람에게는 산비전의 마음을 다해 상을 차린다 라쓴다.

15. 代行(대행)축

대행축이라 함은 제주 즉 종자 되는 사람이 유고 했을 때 아들 혹은 아우에게 대신 시킬때의 축문이다. 대행에는 두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주인이 시켜서 하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행하는 사람이 스스로 대신하는 경우이다.

*아들을 대행시킬 경우

효자()유병사자()감소고우

효자()이경불심사 사자()감소고우

*아우를 대신시키는 경우

효자()유병불창사사제()감소고우

*숙부를 대신 시키는 경우

효자()유병숙숙부 ()감소고우

*종형을 대행시키는 경우

효자()유병대종형()감소고우 (孝子--有病代從兄--敢(감)昭(소)告于)

*제주나이가 어려서 숙부가 대행하는 경우

(나이가 어려서 대행시키는 연령은 8□14세 까지이다.

효자()유불장사 숙숙부()감소고우 (屬(속)淑(숙)父(부))

*형은 이미 사망하고 장실은 아직어려서 차자가 대행할 경우

효손()유불장사 개자()섭사 감소고우 (攝祀(섭사,남을대신하여제사를지내다)

*조부 제사에 아버지가 객지에 게서 손자가 대행할 경우

효자()신재원방 부능장사 효손()대사 감소고우 (身在遠(원)方不能(능)將事大事

*기타축문도 이에 준하여 변통한다.

*세로로 글씨를 쓴다.

16.제사절차

제사를 지내는 절차는 우제에서부터 기제에 이르기까지 동일하다.

1.)제사대상

봉사자의 고조까지 대사를 지낸다.이는 인간의 수명과 비슷하다.

2.)봉사자손

원칙적으로 장자가 주인이 되고 아내가 주부가 되어 주인의 집에서 지낸다.

3.)장수

장자손이 거처하는 방(正寢)에서 지낸다. 요즘은 안방이나 대청 거실에서 지내면 된다.

4.)참사자; 여자도 참례한다.

5.)사전준비 ;

가 목욕재계(沐浴齋(재)戒(계)); 제삿날이되면 전날부터 모든참례자는 몸을 깨끗이 씻고 마음을 근신한다.

나 여수정침(麗掃正寢); 제사모실 장소를 깨끗이 쓸고 닦는다.

제사에 쓰이는 모든 기구오 청소한다.

다 제주수축(修祝); 제주는 상위에 종이를 깔고 단정한 자세로 지방과 축문을 쓴다.

라 설위진기(陳(진)器(기)); 제주는 병풍 교의 제상 제적 축판 촛대 향노 향합 퇴주기 모사기 소반 향안 주가 소탁 등 제사기구를 배설한다.

마 척기구찬(滌(척)器(기)具(구)饌(찬); 주부는 그릇을 깨끗이씻고 제수를 만들어 대상 위에 올 려놓는다.

6.)제사시작

가 변복서립; 제사지낼 시간이 되면 모든 참례자가 예복을 입고 손을 씻은다음 정해진 자리에 선다.

나 점축 ; 어두우면 집사자가 초에 불을 켜다.

다 설소주찬 ;주인과 주부는 집사의 도움을 받아 제1열의 잔반,시접 , 초접,4열의 포, 혜 및 나물, 5열의 과일 전부를 차린다. 또 소탁위에는 퇴주기 술병(주전자) 그리고 향 안에는 향노 향합 모사기 등을 순서에 따라 차린다. 즉 식어도 상관없는 제수품 이다.

라 봉주취위; 지방은 지방함에 붙여서 모시고 사신을 퇴실것이면 정한자리에 모신다. 가묘에 신주가 계시면 모든참례자가 가묘앞에서고 주인 이 대상신주를 바들고 정침으로 돌아와서 소탁위에 모셨다가 주인이 교자위의 정한자리에 다시 모신다.

주인은 독개(위폐함덮개)를 열고 다시 신주덮개를 벗겨 독좌 좌우에 세운다.

마 강신(降神; 강신이란 신위께서 강림하시어 음식을 드시기를 청하는 절차이다. 제주는 신위

앞에 나아가 읊 하고 꿇어앉아 향을 집어 태우기를 세 번한다. 그리고 우집사 (아들 조카 가한다)가 술을 잔에 차지않게 조금 따워서 제주에 게 주면 제주는 받 아서 모사그릇에 세 번으로 나누어 붓고 빈잔을 집사에게 다시 돌려주고 일어나 서 읊 하고 한발씩 뒤로 물러서서 두 번(제배)절한다. 향을 피우는 것은 위에 게 시는 조상신이 향기를 타고 내려오시게 하는것이고 술을 모사에 붓는 것은 땅 아래 계실지도 모 르는 조상의 혼백을 향그러운 술로 적셔서 모시고자하는 상징 적 행사이다 따라서 향은 냄새가 많이나도록 충분히 피운다 그리고 모사에 술 을 따르는것은 모는 역새 사는 모래이므로 묘소를 상징한다.

바 참신 ; 모든 참례자가 신위를 뵈고 인사를 드리는 절차이다. 그러므로 모두 제배하는데

남자는 제배하고 여자는 4배한다.요즘은 남 녀공히 재배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 으나 옳지않다.

지방일경우는 강신을 먼저 하고, 신주인 경우에는 참신을 먼저한다.

사 진찬 ; 식어서는 않되는 따뜻한 제수를 제상에 올려 주인과 주부가 제상 왼쪽으로 가서

주인이 육전 과 육회를 올리고 주부는 편(조청)을 올린다.그리고 주인은 양위의갱

을 올리고 주부는 메를 올린다. 또 밥뚜껑을 열고 저를 고른다.잡사는 탕을 올린 다.

아 초헌 ; 주인이 첫 번째 술을 올리는 절차이다. 제주가 신위앞에 나아가 읊 하고 꿇어앉으 면 좌집사가 고위의 잔반을 제주에게 주고 우집 사는 잔에 술을 가득 붓는다.제주는 이를 좌집사에게 주면 좌집사는 이를 고위앞에 올린다. 비위의 잔도 이렇게 해서 올린다.좌우집사는 육적 과 적염을 정한자리에 올리고 양위의 매, 갡, 편 의 뚜껑을 열고 저를 고른후에 약간 뒤로 물러난다.제주는 꿇어앉아 독축을 기다린다.

자 독축 ; 축문은 초헌이 끝난다음 모든 제관이 꿇어앉고 제주의 왼편에서 축관이 꿇어앉아 축판을 들고 읽는다. 축문을 읽을때는 목청을 가 다듬어 크게 읽어야 하며 일동은 읊드려 경청한다. 축문을 다 읽고나면 일동 곡을 하고 조금있다가 모두 이러나 제 배한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한밤중에 곡을 하면 좋지 않기 때문에 하지않는다. 그리고 좌집사는 육적을 물려 대상으로 옮긴다.

차 아헌 ; 두 번째 절차를 올리는 절차이다. 집사는 어적을 올리고 주부는 초헌과 같이 분향 하고 잔을 올린다. 한발 물러나서 4배한다. 부득

이해서 주부가 아헌을 못할 경우 주인 다음가는 근친자가 대신한다.

그리고 초헌때와 같이 철적한다.

카 종헌 ; 마지막 잔을 올리는 절차이다. 집사가 소적을 올린다. 종헌은 참례자중 다른 어른이 나 특별한 사유가있는 사람이 잔을 올리는데 모든 절차는 아헌과 같다. 그러나잔을 올릴 때 3제를 해서 덜찬 잔을 올린다.이것은 유식때 첨잔을 하기위해서다. 3제를 하지않고 처음부터 덜차게해서 올리는 가문도 있다.

타 유식 ; 식사를 대접하는 절차이다. 제주가 신위앞에 나아가 읍한후 밥뚜껑에 술을 조금부 어 고위 비위 순으로 삼제로 축난잔에 조금씩 나누어 부어 가득히 채운다. 주전자를 들고 직접 부어도 무방하다. 주부는 제상 외쪽으로 가서시접의 술가락을 고위 메에 꽂고 이어서 비위 메에도 꽂는다. 술가락은 오목한 앞이 동쪽을 향하게꽂는다 젓가락 은 가지런히 골라 시접위에 걸쳐놓고 손잡이가 서쪽을 향하게 한다. 그리고 제주는 재배하고 제자리로 물러난다.

파 합문 ;조상이 마음놓고 잠수시도록 자리를 비워 드린다. 참례자 일동은 밖으로 나가고 축 축관이 맨 나중에 나가면서 문을 닫아드린다.문을 닫을수 없는곳이면 병풍을 둘러쳐 도 무방하다. 대청에서 모실경우에는 뜰아래로 내려간다. 남자는 차례대로 동문쪽에 서 서상하고 여자는 차례대로 문서쪽에서 동향하여 약3-4분간 (아홉숟가락 잡숫는 시간) 공손히 엎드려 기다린다.단칸방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문밖으로 나가 지 않고 자리에서 조용히 엎드려 있다가 축관이 (어흠 어흠 어흠)세번 기침(三(삼)어歛(흠)을 하면 일어난다.

가가 ; 계문 (啓門) ; 계문이란 문을 여는 것을 말한다. 축관이 기침을 세 번 하였음으로 모두 들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간다. 대청일 경우에는 마당에서 대청으로 올라온다.

나나 ; 헌다(獻茶) ; 송릉을 올리는 절차이다.그래서 진숙수 라고도 한다. 제주는 신위앞에 나 아가 읍 하고 갹을 물리고 대신 송릉을 올린다. 메를 조금씩 세 번 떠서 말아놓고 젓가락을 고른다.제관 일동은 이삼분간 고개를 숙이고 서있다가 큰기침 세 번하면 고개를 든다.

다다 낙시저 (落匙箸) ; 제주는 서쪽을 향하고 축관이 동쪽을향해서 利威이성 이성 이성을 세 번을고한다음 수저를 거두고 모든 그릇 뚜껑을 덮는다. 告(고)이성을 기제사때 생 락할수도있다

라라 사신(辭神)소지(燒紙) ; 조상과 작별하는절차이다. 이동제배하고 지방을 축문과함께 태워 서 재를 향로에 담는다. 제주는 문밖으로 나가 북쪽을 향해 읍하며 하직인사를 한 다. 신주일 경우에는 신주를 사당으로 모신다.

마마 철상(撤床) ;모든제수를 물리는데 제1렬부터 거둔다.

바바 음복(飲福) ; 음복이란 조상께서 주신 복된 음식이란 뜻이다.

제사가 끝나면 참례자와 가족이 모여서 제수와 제주를 나누어 먹으면서 조상의 은덕을 되새긴다. 음식은 친족과 이웃에 나눠주기도하고 이웃 사람을 초청하여 대접 하기도한다.

17. 참고(參(참)考(고) ;

가 불(불)遷(천)位(위); 학덕이높은 현조이거나 국가사회에 공이커서 諡號(시호)를 받았거나 書 院(서원)에 배향되었거나 또 쇠락한 가문을 이르킨 중흥조 등 영세불가망의 조상으로 서 몇백년 까지라도 제향을 끊을수 없는 조상을 말한다. 이불천위 국가에서 지정한 국 불천유림에 서 지정한 화불천(和(화)不(불)遷(천)이 있다. 또한 불천위 의 예우도 엄격 하여 국천위 장손은 종군(宗君)이라하고 제향때는 비록 관직이 없을 지라도 사모관대 로 삼품관의 옷을 입었으며 초헌관은 반드시 종군이 하도록 되어있다.

나 삼헌의뜻 ; 참례 제관을 3분해서 모두 헌작에 참여하는 의식이다.

즉 초헌은 신위의 친자손이 되는 남자제관 모두가 초헌관이 된다.종자가 헌작할 때 ㄹ 두 예전(예전=앞에 이르러)하여 곡궁 하였다가 독축후 종자와 함께 재배하고 제자리에 선다. 아헌은 여자제관이다. 종부가 헌작할 때 여자 제관은 모두 곡궁했다가 사배를 함깨한다. 종헌은 방계친 척과 잔여 내객이 전부 지전하여 곡궁하고 종헌자와 함께 재 배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참례제관 전원이 헌작한 셈이된다.

다 진찬의순서 ; 육 어, 갹, 편,면, 메, 육품을 제외 하고는 잔반, 시첩 과일 채소 ,등 모든 제 물을 참신하기에 앞서 진설하고 육품은 참신한 뒤에 올린다. 올리는데도 절차가 있는 데 제주는 육 어 갹을 올리고 주부는 면 편 메를 올린다.

18. 절 사(節(절)祀(사)

1) 명절차례

1 참신까지의 절차는 기제사와 같다.

2 진찬(進(진)饌(찬); 기제사와 같으나 다만 적 자리에 왼쪽부터 육적 소적 어적 적소금 순으로 동시에 차리고 기제때 메 자리에는 고위 떡국 갱자리에는 비위 떡국을 올리는것이다르다.

3 헌주 ; 제주가 신위 앞에 나아가 읊하고 주전자를 들고 제상위의 옷대 신위 잔반부터 차례 대로 술을 가득 따르고 재배한다.

4 아헌 ; 삼헌 없음

5 삼시정저 ; 주부가 신위 앞에 나아가 몸을 굽혀 예를 하고 옷조상부터 차례로 뚜껑을 연다.

고위 떡국에 숟가락을 꽂고 젓가락은 시접위에 걸친다. 이어서 비위도 그렇게한 다음 사배한다. 그리고 제주이하 모든 제관이 3-4분간 공수하여 고개숙여 서있다.

6 개문 헌다 없음

7 낙시저; 기제와 같다 주부가 삼시정저 할때와 같은 순서로 뚜껑을 덮는다.

8 이하는 기제사와 같다.

2) 한식차례

1 가묘에서 지내는 경우는 제수만 약간 다를뿐 설날 차례절차와 같다. 묘소에서 지낼 경우 축 문을 읽으려면 집에서 써가지고 간다. 그리고 지방은 필요 없다.

2설위진기(設(설)位(위)陳(진)器(기) ;에서 병풍, 교의,모사는 필요없다.만일 석상이 있으면 제상 향안주가, 소탁도 필요없고 석상을 깨끗하게 닦는다.

3 설소주찬(設蔬酒饌) ;에 있어서는 시접에 숟가락은 담지않고 젓가락만담는다.

4 강신뇌주(降(강)神(신)□(뇌)酒(주) 에 있어서 집에서는 모사에 하지만 묘지에서는 땅바닥에 지접 뇌주한다.

3) 세일사(歲(세)一(일)祀(사)

세일사란 일년에 한번만 지내는 제사란 뜻이다.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은 기제 차례등 일년에도 수차례 지내지만 세일사를 지내는 원대조상은 일년에 한번만 지낸다. 어떤이는 이를 시제(시사)라 하는데 매계절의 중간달에 지내는 제사를 시제라 하는 것이다. 또 묘제라고도 하는데 한식차례등 묘소에서 지내는 제사는 모두 묘제 라고한다. 따라서 세일사를 지내니 묘사니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가 대상; 5대조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나 봉사자; 문중의 제사이기 때문에 제주가 반드시 장자손 이되는 것이 아니고 문중대표가 제 주가 되기도 한다.

다 배우자합사 ; 내외분 묘소가 따로 있으면 따로 지내기도 한다.

라 일시; 대개 추수가 끝난 음력10월중에 하루를 정해 낮에 지낸다. 같은 10월이라도 옷대조 상을 먼저 지내고 아랫대조상은 뒤에 지낸다.그러나 아랫대 묘소가 옷대묘소 근처에 있으면 다른곳에 있는 옷대 묘사보다 먼저 지낼수도 있다.

4)절차

가 묘지에서 지내므로 병풍 교의 신위 모사등은 필요없고 제상위에 차일을 친다.

나 제주는 구태어 장자손 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문중대표자가 되기도 한다.

다 묘지에서 지내기 때문에 침작 함문 계문의 절차가 없고 초헌때 메 뚜껑을 열고 삼시정저한 다.

라 여러 자손이 함께 지내기 때문에 행동통일을 기하기위하여 홀기(笏記)에 따라서 지내는경 우가 많다.

강신

참신

초헌

독축 가문에 따라서 생략하는경우 많다.

아헌

종헌 가문에 따라서 생략하는경우 많다 무축 단헌

삽시정저

헌다__三(삼)獻(헌)하더라도 메 갱 을올리지않는경우도 있다

낙시, 사신

5)묘사축

유세차(간지)시월(간지)삭십오일(간지) ()세손()감소고우

현()대조고쳐사(학생 또는 관직) 부군지묘

현()대조비유인(숙부인.정부인)김해김씨지묘 기서유역 상노기강참소대영 불성감모

근이청작포혜(서수)저천제사 상향.

해설; 몇 년몇월 몇일에 몇세손 누구는 몇 대 할아버지 할머니묘소에 감히 고하나이다. 절후가 바뀌어 이미 서기가 내렸삽기에 봉분을 쳐다 보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으로 제사를 올리오니 흠향 하시옵소서.

6)산신축

유세차(간지)시월(간지)삭십오일(간지)유학()감소고우

토지지신()(주제자의성명)공수제사간

현()대조고쳐사(학생 모관)부군지묘 유시보우 실뢰 신희 근이주찬 경신전현 상향

해설; ; 연월일 유학 누구는

토지지신에게 감히고하나이다.

몇 대할아버지 묘 앞에 공손히 제사를 올렸습니다. 진실로 신령님의착하고 힘 덕분에 항 입었습니다,감히 술과 찬으로 공경히 제사를 드리오 니 흠향하소서.

7)성묘

이미다례를 지냈으니 제수는 필요없다.

묘앞에서 일동제배

묘역을 세 번 돈다,

돌아올때는 소나무 가지를 꺾어서 묘앞에 깔아놓고 온다.

8)십간문자열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십이지 문자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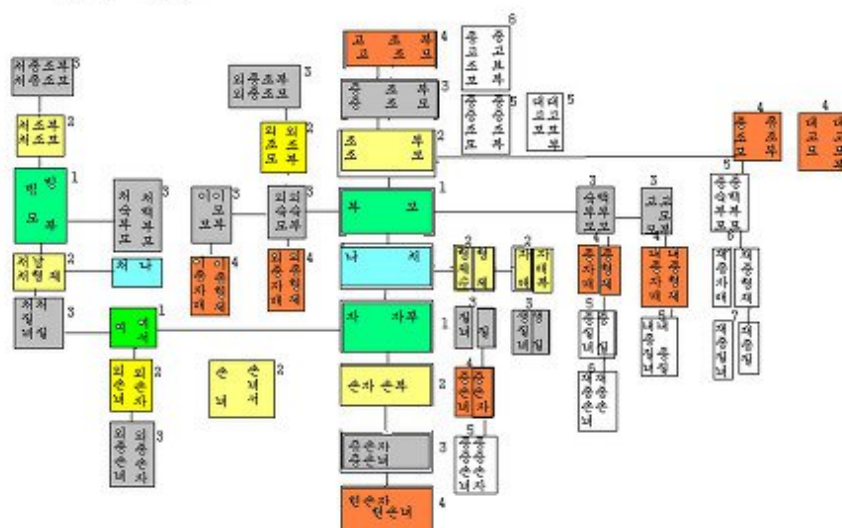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9)제례에사용하는 한문자의 뜻 풀이

妣(비)죽은어미, 君(군)임금 주권자, 府(부)곳집 마을 관청, 士(사)선비 ,于(우)여기우 부
터우 어조사, 顯(현)나타날, 告(고)알리다 여쭙다, 昭(소)소명할, 敢(감)감히 구태어
,孝(효)보모에효도할 ,初(초)처음, 朔(삭)초하루, 寅(인)세째지지, 戊(무)다섯째천간,

維(유)오직 , 極(극)다할 , 罔(망)그물 , 昊(호)하늘, 復(복)다시 도라올 (부) , 諱(휘)도라간
높은어른, 易(역)바꿀 , 遷(천)옮기다, 孀(유)아내, 젓먹이, 賴(뢰)힘입을 , 旣(기)이미,
饗(향)잔치하다, 獻(헌)바치다 드리다, 羞(수)맛있는음식을 드리다 바치다. 庶(서)여러
많다, 酌(작따르다 부어넣다. 欽(흠)공경할 흠향할, 醢(혜)초 식초 식혜
脯(포)저미어말린고기, □(창)데치다 삶다, 瞻(침)쳐다보다우러러보다. 薦(천) 천거할 드
릴, 需(수)구하다 바라다 음식.

친척관계 존속계영표



우리에절배우기

블로그 origolshine 오리골 <http://blog.daum.net/origolshine>

저자 경봉

발행일 2012.09.10 09:54:22

 블로그